朝鮮日報
夕刊 十九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太原南方一帶占據
黃河以北完全肅淸
山西南部、京漢線戰況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十九日正午發表=北支方面에 作戰中인 我軍은 二月十一日 紀元節을 期하야 山西南部及京漢線沿線의 敵에對하야 攻擊을 開始하야 各其優勢한 敵을擊破하면서 逐次南方으로 地步를 擴張中인데 戰鬪經過의 槪要는 左와如하다

一、山西方面太原附近으로부터 前進한 部隊는 十三日開柵鎭(文水東北十二粁)十五日夕、文水、十七日夕汾陽을 占領하엿다 楡次方面으로부터 前進한部隊는 十三日平遙 十六日介休及孝義를 占領하고 靈石方面에 進擊中이다 如斯히하야 同方面에서 太原南方平蕃平地一帶를占據하게되엿다

二、鄙鄕附近으로부터 山西省境의 山渓를넘어 前進中인部隊는 十五日涉縣東方地區의 敵을擊破하고 十八日正午黎城에 進入하엿다

三、京漢線方面部隊는 十一日湯陰、彰德南方十六粁附近의 敵陣地를 攻略後因隊에 敵陣地를 突破하면서 南進하엿다 또 新鄕附近의 敵의 越線陣地를 攻擊하야 十五日 그第一線陣地를 突破하고 十六日 縣城을 占領하고 十七日 마침내 黃河北側의要衝 河南新鄕을占領하엿다 這間에잇서 따로 濬陽方面으로부터 前進한部隊는 黃河左岸에沿하야 敵을急追하야 十七日 新鄕背後에 進出하엿다 이리하야 同方面에서는 僅僅一週間으로써 正面百十粁에、從心丸十粁에及하는 極히堅固한 敵陣地를突破하고 京漢線以東에서는 完全히 黃河以北의 地區를 肅淸하게되엿다

四、二月十一日의攻擊을 開始하야 十八日까지에 判明한 我軍의損害戰死合計五十六、負傷四百十二名이다 敵은 過日來 그兵力을 津浦線에增加中인데 十三日以來汶上 濟寧、兩下店及泗水方面에 對하야 攻擊하여왓다 特히 濟寧에對하야는 三個師를 넘는 兵力으로써 三方面으로부터 攻擊하여왓스나 我軍은 寡兵으로 이를 邀擊하야 敵에多大한 損害를 與하고 擊退시켯다 이 敵의攻擊的行動은 最近特異한 現象이다

海軍航空部隊機
衡陽、重慶等地爆擊

【上海十八日發同盟】艦隊報道部 十八日午後十時半發表 今十八日帝國海軍航空隊는 長驅湖南省衡陽新飛行場을 爆擊하야 多大한損害를 與하엿는데 또〇〇機는 午前十一時長驅四川省重慶飛行場을爆擊하엿다 重慶에서는 敵飛行場에 散在한 十四機를 爆擊하야 相當한 損害를 與하고附屬兵舍及 重要한 建築物을 爆破하고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일직이 甘肅省蘭州를 爆擊하고 只今또四川省의 重要地點을 攻擊하야 帝國海軍航空隊는 支那本土를 海의荒鷲下에너코 그爆擊은 支那四百餘州에 敵飛行機가逃亡할場所가업는 事實을 如實히示하게하엿다

【上海十八日發同盟】海軍航空隊의 寺井、森永兩大尉가 指揮하는 荒鷲〇〇機는 十八日午前曉闇을 衝하고 〇〇基地를 出發 湖南省衡陽에 飛去하야 同飛行場에 正確한 集中爆擊을 敢行하야 飛行場에잇든 大型機二機를 爆破燃燒시키고 格納庫及附屬建物에 徹底的爆擊을 加하고 全機悠悠히歸還하엿다 또一部는 漢口飛行場을猛襲하야 이에 大損害를與하엿다

【上海十八日發同盟】重慶來襲에 依하면 長驅重慶을空襲한 我荒鷲部隊는 重慶東方五哩地點에잇는敵飛行基地에 空襲을 敢行하야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陸軍飛行隊 敵根據地爆擊

【上海十八日發同盟】陸軍飛行隊 野中、上田、瀧、河村、神崎各部隊는 十八日朝來數回에 亘하야 杭州西南方桐廬、淳安其他各地의 敵根據地를 爆擊하엿는데 野中上田各部隊는 富陽對岸을 移動中인 約一萬의 敵을 發見하고 이에 大打擊을 與하엿다

石口鎭附近서 北上部隊殲滅

【太原十九日發同盟】我陸의荒鷲部隊는 陝西省境에가까운 黃河方面으로부터 北上中인 數千의敵兵을 石口鎭附近의 山間隘路에서 發見하고 十八日午後 空爆을 敢行하야 거의이를 殲滅시켯다

田島少將負傷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發表(十九日正午) 陸軍少將田島榮次郞은 二月十三日 曲阜西方의 戰鬪에서 左大腿部에 盲貫銃創을 蒙하엿스나 輕傷으로 元氣旺盛하야 아직指揮하고잇다

敵機四十台擊破
海軍機全支를威壓

【上海十九日發同盟】艦隊報道部 午前一時發表 海軍航空隊는 陰雲을 衝하고 長驅四川省重慶을 爲始하야 湖南省衡陽漢口의 各飛行場을 空襲하엿다 即森永、寺井兩大尉가引率한 部隊는 黎明突然衡陽을空襲하야 때마침 警戒中인 E十六型의 敵機를 쫏처 飛行場에 侵入 場內의 敵機十數機를 爆擊하야 그中十二機를 燃燒시켯다 賀久少佐、松貝大尉가 指揮하는 部隊는 國民政府의 本據漢口를 空襲하야 敵E十五型及十六型戰鬪機約四十機와 二回나 壯烈한 空中戰을 演하야 十八機를 擊墜하고 또場內에 待機中인 爆擊機十機를 擊破、格納庫、滑走路를 爆擊하고 佐多少佐가 指揮하는 部隊는 密雲을 뚤고 突然重慶을 空襲하야 飛行場에爆彈을퍼부어 場內施設을 餘地업시 爆擊하엿다 記者甘肅省의 蘭州를突破하고 廣西省南寧을 空襲한 我航空部隊는 只今또重慶、衡陽等支那奧地軍事施設을 完全히 荒鷲翼下에너헛다 國府가最後의 希望을 가지고 새로 輸入한 新銳機로써 그再建을 企圖한 支那空軍도我荒鷲에 脅威되여四百餘州의如何한 奧地라하더라도 逃亡할場所가업게되엿다 海軍航空隊는 더욱徹底的으로爆擊하야써 支那全土에 空襲을敢行하고저 意氣軒昻하엿다

天皇、皇后兩陛下
今日葉山行幸啓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皇后陛下와御同列하사 早春日和한 十九日午前十時 宮城御出門 오래간만에 葉山御用邸에 行幸啓하압시엿다

支那事變勃發以來 七個月 御軫念하압시게도 重大時局에 宸襟을惱하압시면서 宮中에서 萬機御親裁에 오직御精勵하압시는聖慮를 拜察할때마다 恐懼하압시는바로 國民은 모다玉體의 御安泰를御祈念하는바 兩宮侯長官殿下를 始하시와 近衛首相의奏請을 御聽許、今日葉山에行幸 早春의고요한 御用邸에서暫時聖慮를安하압시사 御靜養하압심은 國民이 慶賀하야 御奉願하는바이다

當日 天皇陛下께압서는 陸軍御通常禮裝을 召하압시고 百武侍從長御陪乘、御洋裝을 召하압신 皇后陛下께압서는 竹屋女官長御陪乘、侍從衛御齋를 奉하고 湯淺內府 松平宮相 宇佐美武官長以下 側近供奉 略式自動車 鹵簿로 午前十時 宮城御出門 御道側에 堵列奉拜하는 民草의 赤誠을 受하압시면서 東京驛着御 一旦松의間에 入御하압시사 皇太后陛下御使 大谷大夫를 賜謁、閑院參謀總長宮 伏見宮博義王妃兩殿下께 御對面 御奉送을 受하압시고 近衛首相以下 各閣僚文武顯官에御目禮를 賜하압시면서 御召車에 御乘車 諸員奉送裡에 同十時十三分 御發 同十一時十分逗子驛御着 皇太子殿下 義宮殿下께서 御待望하시는葉山御用邸에 入御하압시엿다

墺太利政府도
防共協定에參加?

【羅馬十八日發同盟】히틀러、슈슈닉會談에 依하야 獨墺關係에 政治的大變革이 期待되는 此際 十八日羅馬에達한 情報에 依하면 墺太利는 그國際的立場을 明白히하기 爲하야 日獨伊防共協定에 參加할決意를 굳혓다고傳한다 目下[illegible] 段落을 기달리어 近近正式發表할것이라한다

【伯林十八日發同盟】베르히테스가-든會談開催를契機로하야 獨墺兩國의 民族主義는 顯著히接近하게되엿는데 十八日하바스通信社伯林支局의 報道에依하면 政府는右情勢를利用하야 多年의宿願인兩國의經濟提携實現을 決意하게되엿다한다 經濟提携中에는 獨墺關稅同盟案 獨墺通貨統一等劃期的項目이 包含되엿는데 이에對하야 墺太利는 政治的代償으로 防共協定參加 國際聯盟脫退 內閣再改造를 獨逸에 約束할것으로보인다(墺首은 介介氏)

森田遠山兩部隊 修武方面敵을急追

【彰德十八日發同盟】十七日新鄕에入城한 我森田部隊는 休息할사이도업시 即時追擊을開始하야 遠山部隊는 森田部隊와합께 左右連行하야 西方修武方面으로向하야 潰走하는敵을急追中이다

對支文化提携에
總督府大活動을計畫

東洋永遠의 平和確立을目標로 日滿支親善을 强化키爲하야 支那諸의 理解에進出한 總督府學務局에서는 產業經濟貿易交通을 通하는 朝鮮과 對北支의緊密한 提携와倂行하야 對支文化援助에 積極的으로進出하게되여 時局對策委員會準備會를 中心으로 目下 著著其體案을 講究하고엇는데 어는內地의 對支文化振興各種團體가 企圖하는것보다 地理的關係에잇서 가장 有效適切한것이리라야 東亞文化를 復興하고 크게 東洋精神의昂揚에 努力하야 日滿支의 堅固한提携手가 期待되다 그런데 그計畫大要는 左와如하다

一、城大、各專門學校敎授의專門的知識提供援助
一、對支文化團體結成
一、親善使節의交換(各種民間團體學生代表 少年少女代表等北支訪問及 北支各方面의 代表를 招聘하야 北支旅行案內의 [illegible])
一、醫療機關其他各種近代文化機關의 技術指導를 提供할것(醫務局으로부터 中國臨時政府中央衛生醫學校에 對한 醫師派遣도 그하나의具體化이다)
一、鮮內中國人의 指導保護
一、其他民間諸事業團體에對하여도 對支援助를 要望할것

北支實情調査次 伊藤述史氏渡支

【北京十九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의 發展에따라 我國의外交方針確立調整이 今後의當面問題로되엿는데 兩國間에는防共協定問題를爲始하야 經濟協定 治外法權問題 租界問題 西原借款其他外債問題等 更生한 中華民國과의間에 逐次處理할 外交案件이 多數하야 英米佛獨其他國際關係가 錯綜한 北支에서 我國이 歐米列國에 率先하야 이問題에 對하야 如何한 解決方針을 取할가는 各國으로부터 注目하는바이다 그리고 我國은이問題에對하야 今後의實情에應하야 愼重히處理할方針으로보여

北支海關問題
英下院質問應答

【倫敦十八日發同盟】이든外相은 十八日午後 下院開院時에서 保守黨議員으로부터 「北支海關稅率改正에 關한 英國政府의抗議에 對하야 北支의 臨時政府는 何等回答을 接하엿든가」라는 質問에 對하야 左와 如히 答辯하엿다 「北支臨時政府와는 何等關係가업다 政府는 北支의 日本當局及 昨日크레기 大使를通하야 日本政府에 提出한 抗議에 對하야 回答을期待하고잇다」

獨墺接近問題 英政府重要檢討

【倫敦十八日發同盟】英政府는 十八日 午後臨時閣議를開하고 獨墺接近에 基한 歐洲의 新事態에 關하야檢討를 遂하게되엿다 特히 十七日再次行한 체임버렌首相 언든外相과伊國大使 그란듸와의會談을基礎로 獨墺問題에對한 英國의態度에對하야 모든角度로부터 詳細한檢討를 遂할터이다

東鄕駐獨大使 필링空相訪問

【伯林十八日發同盟】駐獨帝國大使東鄕茂德氏는 十七日필링空相을訪問하고 懇談을遂하엿다 로이테르通信社伯林支局이 十八日獨逸政府側으로부터 非公式으로어든情報에 依하면 東鄕大使及필링空相은 「日獨兩國政府가共通한關心을有한諸問題」에 對하야意見을 交換하엿다한다

倫敦條約廢棄에
英米兩政府意見一致

【倫敦十八日發同盟】英米兩國政府는 建艦通報에關한 日本政府의 拒否回答에依하야發生한 『新情勢』에對處하기爲하야 外交機關을 通하야 協議를繼續하고잇는데 마침내一九三六年倫敦海軍條約의 廢棄에對하야 事實上諒解에到達하엿다고傳한다 右諒解에依하면 兩國政府는 建艦通報條項을除한 倫敦條約中의 質的制限 各條項은 모두密接한 相關關係에잇고 特히 主力艦의 噸數制限條項과 中級巡洋艦建艦休日條項은 其他條項으로 부터 分離할수는 不可能하다고하고 이것을 一切全部的으로 廢棄함에 意見이 一致하엿다한다 但佛國政府의所謂 『不建造帶』條項을重視하고잇는模樣으로 目下英米兩國政府는 外交機關을通하야 佛國政府와意見交換을行하고잇다한다

米輿論中立에贊成

【華盛頓十八日發同盟】華盛頓포스트紙는 十八日紙上에 輿論硏究所가 全米에行한 民衆投票 『米國은 支那에對하여 武器彈藥을輸出하여야할것이냐』어에對한結果를發表하엿는데그結果는贊成三十六%反對六十四%로 輿論은壓倒的으로 米國의 中立을 希望하고잇는것이 明白히되엿다 輿論硏究所長가랍프博士는 同紙上에 一文을寄하야 『從來各新聞社에서 行한民衆投票는 모두壓倒的으로 支那에便을 드른것인데 今回의 投票는 어點으로 特히意義가잇다』

駐英伊大使 英首外相訪問

【倫敦十八日發同盟】駐英伊國大使그란듸氏는 十八日午前 首相官邸에 체임버렌首相及 어든外相을 訪問하고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右會談에서 그란듸大使는 西班牙義勇軍撤退에 對하야 西班牙에調查團을 派遣하라는 不干涉委員會의 提案에對한 伊國政府의回答을 手交한模樣이다 同大使는 또 獨墺會談에伴한 中歐의新情勢에 對하야 英政府의意向을 打診한것으로觀測된다

英米兩國政府
超弩級艦建造를計畫

【倫敦十八日發同盟】英米兩國政府가 倫敦海軍條約을 廢止하고 大海軍整備에 乘出할것은 必至의事態로 觀測되는데 海軍通으로 알려잇는 데일리텔그라프紙記者 핵터바이워터氏는 十八日同紙上에 一文을發表하야 英米兩國의建艦計畫을左와如히 述하엿다

英國이 今年中에 起工할新主力艦은 英國이現有한最大主力艦푸드(四一、二六〇噸)以上의 超弩級艦이될것이다 三萬五千噸以上의 主力艦建造에對하여는 英海軍에서는 이미設計가되엿는데 噸數도相當히增加하엿스나 大型으로 建造하는데 重大遲滯는 되지안흘것이다 米國은이미主力艦三萬五千噸制限을 撤回하기로 決定하엿다 이結果 米國이 今後建艦할豫定의 新主力艦은 三萬五千噸級以上에 設計를 變更하게될것이다 如何든 英國政府의建艦計畫은 近近發表될것이다

步哨線에 敵襲擊

【杭州十八日發同盟】支那軍은十七日夜月明을 利用하야 錢塘江을건너 同地東北約四十粁地點에 잇는海寧에 上陸하야 同地에南下한 我步哨線을 襲擊하엿는데 我軍은寡兵으로 奮戰하엿스나 衆寡不敵으로 마침내 戰死數名을 내이게되엿다 急報에依하야 來援한警備隊로 겨우 이를擊退하엿스나 一方航空隊의 衣川部隊機도出動하야 十八日朝來 江岸에依據한敵에對하야 猛爆을加하엿다

米兵器發明家
新空襲兵器發明

【華府十八日發同盟】下院海軍委員會는 八億弗의 海軍擴充案에 對하야 連日公聽會를開하고 朝野各方面의 專門的意見을 聽取하고잇는데 十八日 軍器發明家로서 著名한 라스라-•바-로우氏는 近近發表할 新空襲兵器發明의結果 米國의 建艦計畫에 變更을 加할必要가엇다고 左와如히 述하엿다

從來 存在하지아니하든 全然새로운 空襲兵器가 發明된結果 現在의 海軍擴張案에는重大變更을 加할必要가잇다 新空襲戰術에依하면 空軍은一萬五千피-트의高度로부터 一切의軍艦에 勇敢한 攻擊을加할수잇슬것이다 또 從來와가티空中으로부터爆彈을 投下하지안코 即換言하면 空中水雷라는空軍이發明되엿다 이『空中水雷』의 아페는 如何히强力한主力艦도無價値하야 이것이 採用되면 米國空軍을 海岸五百哩의 海上으로부터 撓亂함에는 極히優秀한空軍을必要로할것이다

內相으로부터
遺憾의意를表示

【東京電話同盟】民政兩黨 本部占據事件에關하야 小泉松野兩黨幹事長은 十八日午後二時 末次內相과 院內總理大臣室에서會見하고 內相으로부터 十七日의事件에 遺憾의意를表하엿는데 同役으로부터 十八日朝에 亘하야 團員全部四百二名을 各警察에 檢束하고 即時取調하얏는데 그中二百七十名은 全然附和雷同한者로서 將來에對한說諭를加하야 三三五五 歸宅시키고 남은百三十名은 目下嚴重取調中이다 背後關係等에對하야는取調를進行하고잇다 今後 治安維持에努力할터이므로 諒承하기바란다고 諒解를求하엿슴에 對하야 兩幹事長은 그趣旨를 各其黨代議士에報告할것을 答하고 同二時半會見을 終了하엿다

靈石一帶에
戰雲方濃

【北京十八日發同盟】介休 孝義의一戰에 맥업시 敗退한 山西軍第七十一、第八十四의 二個師는 그南方靈石에 依據하야 抵抗하고잇는 山西軍主力及 中央軍에 合流하야 反擊하여오려하고잇다 靈石은 汾陽 太原 楡次의線을 連結한太原盆地의 南端에位置한 要地로 敵은太原陷落後 同地를 山西省臨時政府所在地로하고 臨汾을防備의 前線要地로하야 이主線에 堅固한陣地를 構築하고 이를死守하려는 作戰을取하야 最近에와서는 一層防備를 嚴히하엿다 이에 對하야 我鈴木、鯉登、小林、森本各部隊는 大谷、平遙、介休를攻擊한勢로써 太原平野의 敵을壓迫하고 長澤、佐佐木、松井、石川의 各部隊는交城、文水、汾陽을 攻略하야 西部山西의 各地를 一擧로 뭇질러 意氣가衝天하엿다 이리하야 我軍은 太原盆地의 太半을 席捲하고 靈石을 中心으로 鐵南進中인대 靈石을 中心으로 戰雲이 濃厚하다

時事解說
商租權

◇商租權이라는 用語는 大正四年五月二十五日 日本과 支那間에 締結된『南滿洲及東部內蒙古에 關한條約』에 처음使用된것이다 即同條約第二條에 『日本臣民은 各種商工業上 建物을 建設하기爲하야 又는農業을 經營하기爲하야 必要한土地를 商租할수잇슴』이라고 하엿다。 要컨대 商租權이라는 것은 土地의 賃借權又는 借地權으로 其期限은 三十年을超過치안키로되여잇다。 그러나 其後 無條件으로 更新할수잇게되엿다。 元來 一切의商租權이 三十年까지의 長期의 無條件更新이 可能한 債權에 限定되여잇는것은아니다。

◇商租權中에는 短期의것도잇고 無條件更新이 아닌것도잇다。 商租權에는 長期의 無條件更新을 할수잇는것도 잇다는것이다。 無條件更新의 意義에 對하여는 更新에 當하야 從來의 條件대로하고 따로새로운條件을 加치안는다는 意味나 更新에 當해서는 貸主의 同意를 必要하지안코 借主의意思만으로 更新할수잇다。 當初交涉經過에 잇서 日本은 賃借權과 함께 所有權을 取得하려하엿고 支那는 所有權을 與하는것을 어데까지 拒絶하엿다。 여기서 結局 雙方의 要求와 主張의 折衷妥協으로 形式에 잇서서는 所有權이 안이오 實質에 잇서서는 거어 所有權과 다름이 업는 商租制度가 생기게된것이다。

◇支那當局은 以前부터 外國人의 土地所有를 禁하엿고 最近昭和四年에는『土地盜賣懲罰條例』를 發布하야 外國人에게 土地를 팔거나 貸與하는者는 死刑에 處하게되엿다。 그러나 土地賣買는 자꾸 盛行하야 이土地의 所有와 商租權問題를 中心으로 日本人과 支那人間에 만흔 紛糾가 이러나 日本政府와 支那當局間에 困難한 問題가 醞釀되엿든것이다。

人面錄

◇南總督 開會日에 어떠어든 國語普及上 意味로 朝鮮語를 廢止하라 建議하고, 어떠어는 排日思想의 根源되는 朝鮮語 朝鮮歷史科目을 廢止하라고 叢考。
◇南總督이 그러함을 眞意하는 것으로 맛지 안키니와 대체 今日에 그런 沒常識한 言論을 弄하는 이가 잇슴은 天下笑止千萬。
◇그중은 一國에 國語가 二三個 잇는 例도 모르고, 甚至於 數十民族이 各自語로 敎科書를 쓰는것을 모르든 모양。
◇南總督의 禮物의 하나인 朝鮮人志願兵制度 來四月三日부터 施行한다고。
◇어마 志願者가 十倍나 되니 第一期成績은 良好。
◇河某란 晉州富豪 晉州서 寄附했든 土地를 다시 京城某學校設立에 寄附했다고 晉州서 抗議。
◇經緯는 如何든 晉州人으로 晉州에 寄附햇든 土地를 京城에 또 寄附함은 不可信。
◇흥 功名心이 압서는 寄附가 일기 쉬운世上。
◇다 가티 注意、反省할일。

人事·集會

◆李永春氏(群山熊平農場診療所長)十六日午前三時黃海道甫川石隅洞鄕第에서 遭外艱

옴 피풍 하벽고 가렴증 靑山堂 本舖

公眼科 京城府齋洞町四番里 電話光三三五九八 醫學博士 公炳禹

世界的 強壯劑
네오톤
效果本位

呼吸器病 治療와 豫防

酷寒期의最高潮에達한只今은 健康體·虛弱體를 不問하고 누구나 呼吸器官을補强하는것이 絶對必要함을느끼게됩니다。

이時期는 生理的으로 身體의抵抗力이激減되므로 虛弱體는 肺炎·結核等의重症을誘發하고 健康體는 呼吸器粘膜이弱하게되여 感冒菌에 感染되기 第一危險한 時季입니다。

네오톤 (NEOTONE)은 體內에榮養을供給하고 新陳代謝를旺盛케하며 消化機能을助長하고 食慾과 體重을增加하여 身體의抵抗力과 呼吸器官을補强하는同時에 結核菌을殺滅하는 有效成分이適當히含有되엿스므로 酷寒期에 健康을 維持하는데 特히 推奬합니다。

(本劑를 服用하실때는 먼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產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罐 大罐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合法登記된土地를 奇怪·逆産으로處分

在奉天朝鮮人住宅組合所有七萬坪

湯玉麟의所有土地라하야

【奉天】 도만십여년에 … 재만동포는 그동안사회적모든불우한 환경속에서 자기네를 외생활토대를 엇기위하야 남이알지못하는 숨어린비애가어떠햇스랴마는 … 만주사변후 치안관계로써 벽지로부터 봉천시내로 몰려든동포는 현재봉천시내외를합하야 사만을 돌파하고잇다 이와가티 도시의인구는날로증가하는일방 만주국에서는도시계획과 국가건설공작이 진행됨에따라현재동포가 모혀사는 집단지대에 대건물을 건축할계획과 또는대재벌이 진출하야 토지를매수하고 번화한거리를 만들려는 계획이잇서 현하 주의환경으로서는 아모로 이지대를 퇴거치안흐면안될 경우에 이르럿스므로 심각화하여가는 주택난은 문자그대로 불안정하여 갑분아니라 재봉조선인자재 공공문제와 아울러실로 중대한사회문제화하고잇섯다

이가티 필연적으로 주택난에 봉착할것을 간파한 동지유지서모(徐鎭模)김병태(金炳泰)김신근(金信根)삼씨의 수씨는 주택조합을 만들기위하야 다방면으로 맹렬히 활동한결과 동포들의 빈약한주머니를 털어서 모혼돈이 이만여원에 달하얏스므로 드디어 삼년전 즉 소화십년오월십팔일에 모집한 봉천조선인 주택조합(奉天朝鮮人住宅組合)을 창립하얏든것이다

이러케혈(血)과 성(誠)을합한 동 주택지에는 일조이석(一鳥二石)격으로 도시건설에잇서서 날로요구소비되는건축에 필수품인 모래와 자갈(砂,小石)이 무진장으로 나오게되엇스므로 동조합에서는 그모래와자갈을 채매(採賣)하야 어느정도의이익을 … 지금은 칠만여평(시가십만여원)의 주택지를 소유하게되어 멀지안하 대규모의 집단부락을건설하게될것인데 세상일은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최근 동조합에는 기괴한화살이 던저위 … 탕옥린(湯玉麟)의 소유토지라하야역산(逆産)인 명목으로 국유토지로 처분한다고하야 일반조합원은 물론 재봉조선인 전체에대한대타격이 업지 안흘것인바 이와가튼 "케이트"한사실을 세상이 알지못하는 백일하에 폭로하야 사회의 시경을 구하지안흘수업게되엇다

…

最高法院에 上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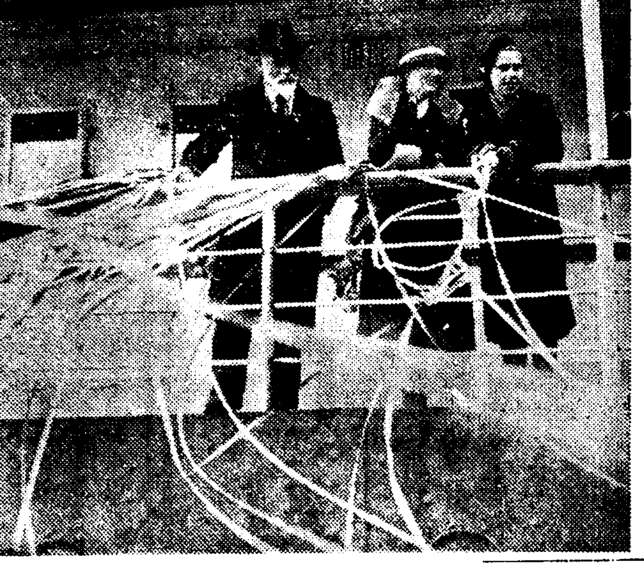
注目되는判決

在奉朝鮮人血汗結晶

【奉天】 사건의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이년전인 소화십년경월경에 그주택지부근에잇는 토지구천여평을지주인만주인 황치(黃致)로부터 매수한것이엿는데 동년구월경에 동연 봉천세무감독서구유재산과(奉天稅務監督署國有財産科)에서는 주택조합대표자지석모(池錫模)씨를 청하여 그토지는 그곳에 탕공관(湯公館)이라는 토지비발(碑末) 한개가 잇는것을 보아 그토지는 과거장학량 시대의 탕옥린(湯玉麟)이가 소유하엿든땅이니 그토지는역산(逆産)으로 처분하야 국유재산으로 몰수한다고 언명하엿다고한다

그러나 주택조합으로서는 그토지를 매수당시 하등의심나게 산것도아니고 정당하게 만주에서 토지매수에밟는수속을 다할뿐아니라 매도자(賣渡者)가 본인이가 아닌가를 만주관청으로써 제일시험하는 그부근에이십여년 거주한토착민 유력자의증명이며 또는 그곳촌장의증명을 마러가지고 확실히 그사람의토지란것을 안후에 그간사오년간 계탑되어잇든 세금지세(地稅)전부를 현공서(縣公署)에가서납부하고 증명서를바든후 봉천지방법원의소유등기(所有登記)수속과 일본령사관에 상조권(商租權)등기수속까지 전부마친토지이므로 우리로서는 그토지를 몰수당할수업다고 일축해버렷다고한다

사건이 이와가티 명백하게되엿스므로 봉천세무감독서국유재산과에서는 매도자인 지주황상대로 봉천지방법원에 소송을제기하엿는데 지방법원에서는 그토지는 그사람의것이 확실하다고 자기들이 매매시에 매수자에게 소유등기까지 해준그토지 …



中等校以上에

支那語科設置

新學年부터實施

全朝鮮六十餘學校를비롯하야

講習所도五個所를創設

조선에서 중등정도학교이상에 지나어를 가르치게된다는 본지로 이미알려진바이지마는 총독부시국대책 위원회에서는 금후구체화되고잇는 조만일여(朝滿一如)로부터 일만지 제휴의 강화로 말미아마 참된동양평화를 확립하고 제국의제일선적중대역할을 질머지고잇는 조선전민중으로하여금 전면적으로 일지친선을 도모케함에는 상대방의 민정풍습을 이해할수잇는 방법으로 지나말을 배우는것이 가장경이라하야 총독부에는 십삼년도부터 전조선 전문, 중등학교에 지나어과를 실시하기로되여 이계획은 일지경제 제휴에 가장긴요한 역할을 하게되는 여잇는 경성고상(高商)에 전임강사한명을두는것을 필두로 법전(法專)의전(醫專)고공(高工)경성공업은물론 … 다시조선공립사두명식을두고 …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등 륙십여교에대하야 지나어과교수를 실시하야 어떤는지매주일 세시간식규정시간으로되여잇다 그리하야 각학교에서는 지나어교수와 병행하야 희망자에게대하야는 적극적으로 지나어의리해를 기피하기위하야 전조선주요도시 다섯곳에 총독부또는도(道)가 주체가되여 어강습소를 개설키로되엿다

지나와 그의말을때리고 유치장신세를지고잇는 청년이잇다 시내원정(元町)일정목일번지 경성부청 …

地久節奉祝함께

婦人報國祭擧行

婦人報國精神强調週間도實施

삼월륙일은 황후폐하의 제삼십오회어탄신이시므로 애국부인회에서는 항례에의하야 지구절(地久節)봉축부인보국제를 거행할터인데 이번은 국민정신총동원을 요하는 중대시국에감하야 동회조선본부에서는 류일을 중심으로하고 『전조선일제부인보국정신강조주간(精神强調週間)』을설정하고 기간중에 실천망회원을총동원하야 아래와가튼 행사를각각 실시하기로 되얏다 또각가정에서는 국기를게양케하고전가족이 축하하기로 되엿다

三月四日 同五日 皇軍慰問日

出征軍人遺家族傷病軍人並陸海軍病院及 療養所慰問

三月六日 奉祝日 地久節奉祝婦人報國祭並皇威宣揚武運長久新願式典擧行(愛國子女團各婦人團體參加)

三月七日同八日 廢物善用 消費節約日 廢物整理消費節約並軍慰問金並愛國貯金資金週成

三月九日 同十日 愛國貯金日 愛國貯金奬勵 愛國貯金組合結成

慶北地方에

暴風禍

【大邱支局電話】 지난십륙일부터 경북일대에는 폭풍이부러 동해안일대를경계중 십칠일에 이르러 이를 해제하엿는바 십팔일밤부터 폭풍이다시 불기시작하야 영덕군(盈德郡)내에서는 가옥의전궤가두호요 바람통에불이나서 세호의전반소가 잇섯스며 발동선한척을 유실하엿다는데손해는 칠천원이라고한다

"팔아둔쌀이니 마음대로실어라"

穀商인척하고다른싸전에處分

黃橋싸전怪盜取調된眞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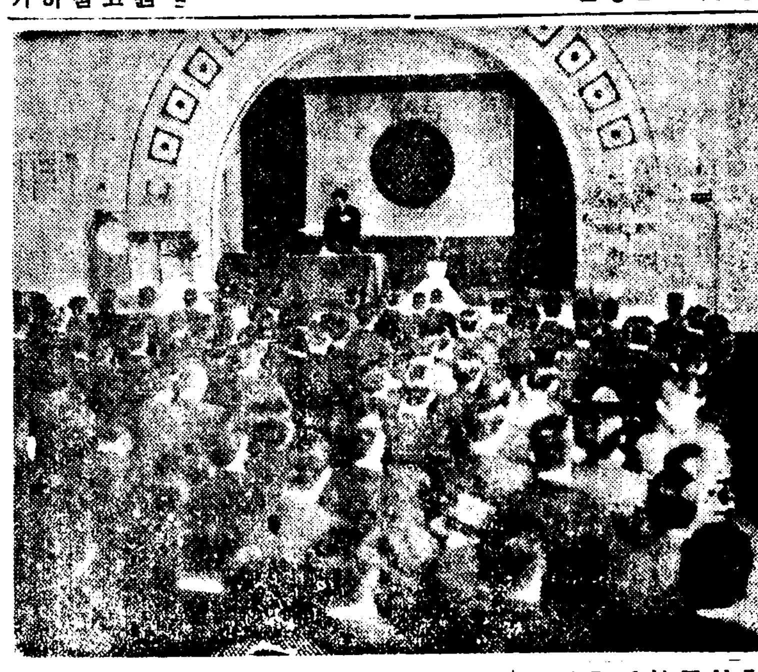
(京城府廳)고원대도손(大島巽)(二○)은 십팔일오후여서시경에 원정(元町)일정목일백십구번지 고전식당(高田食堂)에들어가서 밥열두시까지 술을마시고 흥유하여섯는데 주인고전(高田)부리가 …

루보=지난이십칠일 부내황교(黃橋)싸전』황휴식(黃休植)의가게에 드러가서 백미스물두섬을훔처다가 수사과에 판내에 발생한가검사사건수사로 바로 이사건의취조는 그간통서에 체포되엿다한은 당시보도한 다와갓거니와 일월이십팔일 본경서조를 대강마치엇다는데 범인과 범행방법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범인은 부내원남정(苑南町)사백이십사번지 전과삼범 김준대(金俊大)(三)인데 그는소화십년십삼일 현무소를나와후 곳조선요리 국일관(國一館)에 "뽀이"로취직하엿다가 조행이조치못하야 작년팔월에 해고를당하야다 실직하고 생활이곤난하야지자 그는일직부터 노리고잇든 황교싸전에서 쌀을훔칠생각을이르켜 일월이십오일 인의정십사번지 산전철물상(山田鐵物商)에서 열쇠를사가지고 이십칠일밤 아홉시쯤 그의친구인 공덕정(孔德町)사백십팔번지 구루마꾼 리칠식(李顚植)(二)에게 자기가 쌀을운반하야달라고 말한후 전기황교싸전까지 가치가서 자기상점처럼 태연히 가게문을열고 백미스물두가마니를 훔처서구루마에실고 그길로 무교정(武橋町)유진십번지 심상광(沈相光)싸전에가서 미곡무역상인척하며 열세섬을 일백유십오원에팔엇다 남어지아홉섬과 현금백원은리찬식의집에 맛기고 유십일원을가지고 다옥정(茶屋町)이십팔일 신정(新町)유곽에와서다가 보천서가검사수사대에게 부산서로 체포된것이라고한다 …

北支鐵道員

不日中에派送

철도국에서는 만철등에서 북지각의 철도에 종사할 철도원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맛고그동안에 오육백명의 지원자를 모집하얏는데 이들을 불원간에 현지로 수송하기로되엇다한다 …



京城府教育會總會

… 경성부교육회(京城府教育會)에서는 이십일오후부터 부회의실에서 제이회총회를 열고 … 삼십삼년도 예산외안을 통과한후 … (사진은 동총회)

龍井村에大火

五十餘戶全燒

【龍井支局電話】 룡정촌(龍井村)에 … 오십여호를 전소하고 …

放縱한며누리

親權을업새주

"손자사랑은할머니"

아들의 정처도 생각지 안코 절도사나이에 눈이어두어 방종한생활을 계속하는 며누리의 행동을 보다못하야 드듸어 모든 부고리원을 무릅스고 며누리를 거러손자에대한 친권(親權)을 … 제기한 시어머니가 잇다 부내명륜정(明倫町)이정목 …

不正한店員

부내고시정(古市町)… 김수길(金壽吉)은 …

天氣豫報

概況 두개의優勢한低氣壓은 北海道北部의 海上에잇서서高氣壓은 蒙古에七七五미리를보이고 이로부터 氣壓은滿洲를거처 本部方面으로 나저지고잇다 滿洲朝鮮은 大槪日氣가조흐나 滿洲本部는호려서 地方에따라서는降雪, 湖南地方은 흐림 表日本은晴이나 裏日本은눈으로 朝鮮內地는全體로 北西季節風이强하다

豫報 今夜와明日은 北西風이불고 晴이다

昨日最高 零下二度四

同 最低 零下七度九

今朝最低 零下六度四

今日正午 二度四

癩病患者들의慈父

맥켄지氏歸途에

廿八年間汗血의功績을남기고

【釜山】 인간세상의 모든병중에 불치의천형병(天刑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허하는 라병환자를 위하야 어심퍼인간이란 진동안 가지친과 정성을다하야 하루가티 노력하야온 부산라병원(釜山癩病院)원장 제一. 노블매켄지(梅見)는 편민우지 공회보계자급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생도등 천여명이 송별하는중에 대성왕 부터라선 창경환(昌慶丸)으로귀국의길에올랏다 …

그리고씨는 귀국에 애본(埃及)에서 열이는 세계라병연구대회(癩病研究大會)에 출석하엿다가 예루살넴과 뻿네헴등기독교성지를 순례한후 자기고향인영국(英國)스코틀랜드에 도라간다는데 조선의 녀인들을위하야 …

貴紙를通하야

여러분에感謝

맥켄지氏談

여러분지간 정을들이고 여러 … (사진은 부산 부두서)

母女를亂打

술갑내란다고

술먹고술갑달라는 주인마누라 …

不正防毒面取締

陸軍科學研究所檢定濟에限

【朝鮮總督府許可濟】 최근방공사상(防空思想)의 보급발달에따라 방공자재(資材)의 판매가 점차로 증가하고잇는데 이들자재중에는 간간히 그구조혹은 성능이 불완전한것이잇스므로 총독부당국에서는 방독구(防毒具)의 취체규정을 발포하야 판매취체를 철저히하기로되엿다 취체규정을 보기까지에는 될수잇는대로 육군과학연구소에서 검정된 방독면(防毒面)방독야과(防毒夜袴)등은 그검정을 마춘것으로 판매케하고 도기라의것에 대해서 성능에 의문점이 …

崇中制帽쓴少年賊

二千餘圓을窃盜

市內各處旅館을舞臺로活動

훔친돈은旅行費로全部消費

… 평양숭실중학교(崇中)의정복정모로 경성을비롯하야 전조선각도회지려관을 전문으로 절도행각을한 대담한소년이 종로서에부잡혓다—금년초부터 종로서관내여러려관에서 손님의돈이 업서지는사건이빈번하야 종로서에서 그범인체포에 노력한결과 수일전숙모자를쓰고 종로를 어릿어릿하는 수상한소년을 잡어다가 취조한결과 이소년의손버릇은련명되엿는데 그는 개성부남산정(南山町)육백오번지 태생김동선(金東善)(二)으로 열한살때 부모와함께 평양에이사를가서살다가 재작년봄 자전거를 절도한죄로 검사국에서 일년반의 징역을치르고나와 평양으로 도라갓스나 부모는서울로 이사를 가버렷뒤라 금년초에 부모를차저서울에 …

어찌된는지 알수업서주 … 왓스나 어데잇는지 … 령)에따라 전조선으로부터 평양으로이 오대구부내에 잇서서도 금세공업자는 대량의 … 에 …

宅扱成績不良으로

非指定業者安堵

取扱貨物의一分五厘에不過

철도국에서는 지난일월부터 전국의 택급(宅扱)제도를 실시하엿는데 상순(上旬)의 성적은 예상보다 매우 불량하야 전조선추요역에서 발송한 수량은 겨우 …

金使用制限으로

細工業者에打擊

【大邱】 지난일월사일부터 실시된 금사용제한령(金使用制限令)에따라 …

따이야改正은延期

철도국에서는 오는 사월에 할차운전시간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로 계획하엿든 것이엿다 …

박타-레코-드

一枚金壹円拾錢

黄琴心

저도몰라요

마음의港口 KJ-1144

流行歌

芳香 イナシン 一吹必殺

清血排毒強心特効薬 海草精

適應症 悪性梅毒疾患,淋毒疾患,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膚,咽喉症,連珠腫,頭痛,腦溢血,中風,內臟,疲勞 一瓶(一個月分)三圓九十錢 京城府鍾路八丁目二六 ホルモン医化学研究所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恩給 低利融資 京城鍾路二丁目八 永保グリル內 金星商會 電話(光)六三九番

朝報案內

半額 … 京城府鍾路二丁目 韓洋出版社

有給 社員採用 … 私書函光化門三七 皇漢企業部

自動車 … 京城府太平通 … 學則送呈 來問歡迎

學生募集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滿洲自動車學校 學則送呈 創立以來十六年 設備東洋第一 寄宿舍完備 馬動式指導敎育 合格率最高 就職迅速 乘用車及トラック練習 在學生百五十名 本科 受驗科 三個月 一個月 卒業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 電話(2)二九四四番

普成專門學校生徒募集

京城保育學校生徒募集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募集

財團法人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京城

金泉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朝鮮總督指定 信聖學校生徒募集 (平北宣川)

宣川商業實修學校生徒募集 (平北宣川邑)

宣川保聖女學校生徒募集

平壤聯合基督病院 看護婦生徒募集

箕城醫學講習所生徒募集

正義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平壤府水玉里)

光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平壤府景昌里)

甲種 崇仁商業學校生徒募集 (平壤府慶上里)

道立 平壤醫院看護婦生徒募集 (平壤府南町)

優秀保險付 國産ミシン 大特賣提供

◉機械の性能ご運轉輕快で賞讃を博し

◉絶對追從を許さぬ日本一安價で提供す

十五種=十六型手廻ミシン機……五十九圓五十錢

十五種=十六型足踏ミシン機……七十八圓五十錢

十五種=八十三型高級キャビネット式……九十八圓

【特約店大募集】 名古屋市西區傳馬町 製造元 東西商事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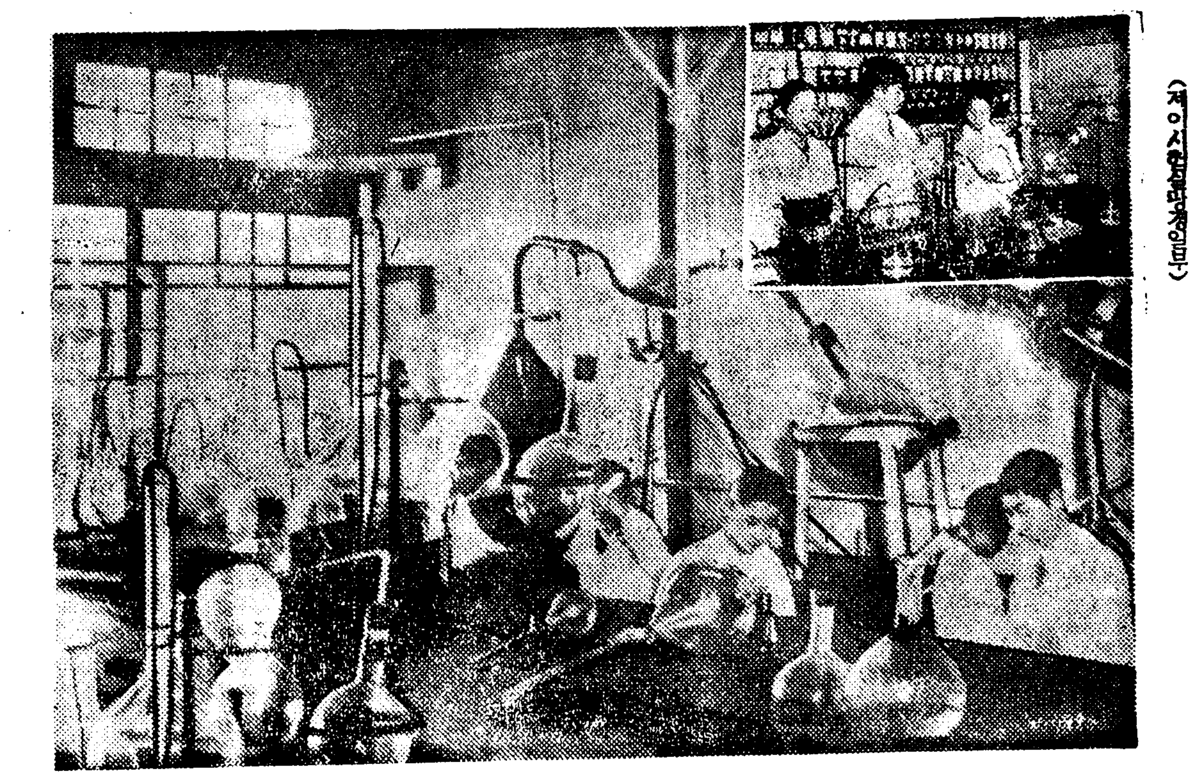
매도구엔 푸로다ー가 제일

驅黴最強力劑

에 제일힘센먹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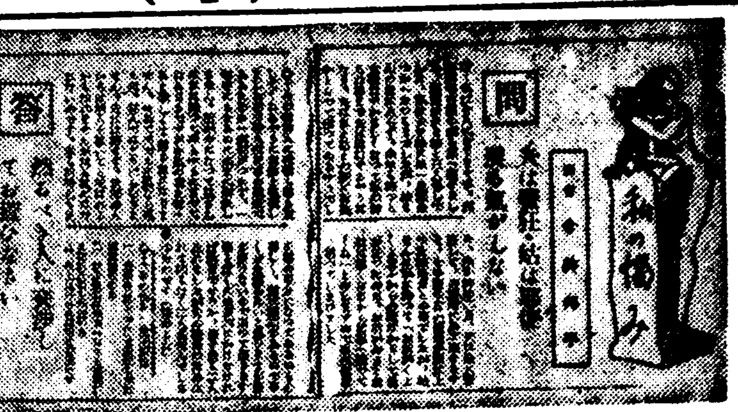
주사로안낫는 분은 꼭 푸로 다를쓰시오

이러한 조선제일가는 큰시험실(試驗室)은 신성당 박게업다。



(제이시험실광경일부)

선성당제일시험실광경일부



東京中外商業新報所載

(동경중외상업신보소재)

무서운매독으로말미암아불행하고아불행을당하엿다는 [illegible]

問 남편은 밋치(發狂)바리고 시어머니는구박만하니 시집사리못해!

◇나는 이십삼세되는 녀자인데 사년전에 명고옥이라는곳 어느 집으로 시집갓습니다 시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세식구이엿습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게 일심전력으로 봉양을 하엿는데 시어머니 눈에나서 한번이못되여 잔소리가 심하야지고야 무엇인든지 남편에게 뜻박게말을 고자질하며 [illegible] 하얏슴으로 남편은 새중간에서 엇지할줄을모르고 매우 [illegible] 양이엿습니다。그런대 작년이월에 남편은 별안간 발광(發狂)하야버렷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바든즉 십년전에 걸렷든 매독이 머리로 드러가서 뇌매독이 된까닭이라합니다 이런것을 시어머니는「네가남편을 잘못구려서 걱정만식힌까닭으로 밋처버리게되엿다」고하면서 네가잇스면 더ㅣ심하야질것이니 친정으로 도라가라고 쫏처냇습니다

그후、할수업시 [illegible] 사람을식혀민적을 떼、달나고교섭을하엿스나 도모지 결말이나지아니하고 발서일년반이되도록그대로 [illegible] 지금다시시집으로가자하니 그도 어렵고그런중이라도 남편이나 바른정신으로 도라오면 모르되종시낫지아니하고 점점발광중이 심하야지니 남편에게는 참아못할일이요세상에서는 병든남편을두고 갓다고 조롱할지도 모르다 그러타고도저히 시집으로 갈처지가아닙니다 또 친정엔들 언제까지든지폐롭게할수도업고 맛침 다른데 혼담도잇슴으로 빨니 결말을집라하는대 민적을가를라면 재판을 해야하겟습닛가 그리고 아들은 둘이나잇섯는데 남편의매독이 전염이되야 낫지 얼마안되여돌다 죽고마랏습니다

이일을 장차엇지하엿스면조켓슴닛가

答 딱한 사정입니다 적당한사람에게 의뢰하야 교섭하시오

무료혈액검사 지방에서섭비가 불충분하야 혈액검사를 못하시는분은 의사에게 피를 뽑아보내시면 무료로 검사표를보내드리겟습니다(保健奉仕)

만인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血의敵

앗가운 청춘 꼿다운 청춘을보호 하자

全人類의敵

인매독을박멸하자 内務省統計에 매독으로사망하는자가 일만명중에 一一〇이라는수자로서 다른나라보다도 몃배더만타한다 더욱 사람의꼿따운청춘시대에 특히만흔병이니 참통탄할일이다 그런대 이병은 화류병이고 또 코가 떠러지고 언청이가되고 ○이빠지고 룩룩 창독이 터지고 하는아주 지독 하고창피한 악질임으로 병에걸녓서도 남이붓그러워 잘말하지 아니하고 내외간이라도 말못하는 일이 만타 또 유전으로 선천매독이 만호나 이역시 매독인줄 알면서도 잘 말하지 아니한다。그럼으로 매독이 이세상에 그러케만치 아니한줄알지만은 한번 걸리여서 고치지 아니하면 칠팔대(七八代) 유전하는 이매독이 우리 인류에 얼마나 만히 퍼저 만연되여 큰 해독을 주는가는 일반 전문가는 물논 나라정부에서도 크게 근심하는바이다 一時的、不合理、不充分한治療를排除하자 도리혀병을악화한다 병고치려다가

生命을빼앗긴다

그런대 보통、매독이라하면 륙백륙호(六〇六號)주사로 병균을일시 잠복만시키는일시적 치료법외에는 특별한 약이업섯다 하는수업시 독한약을 피우다가 참혹히 피를토하고 죽는수가만헛고 또주사도 일주일에 한번씩 수십주일을 두고 마저야 겨우 그만하기는하나 춘추(春秋)로 다시 도질뿐아니라 잘못마지면 살이썩고 생명에도관계되며 수백원의 금전이들게되니 무서운 병인 줄알면서도 그대로 두게되니 참절통비탄할 일이다

悲觀無用 放心絶對禁物

(비관마시오)

중병이라고 비관할것도아니오 경중이라고 방심은 절대마시오 특히 잠복성매독은그다지 심하지아니니 함으로 등한히 생각하고 치료를 태만히 하면 병세는 점점 기피 드러가 내장 골육(骨肉)에까지 침입 하며 척수(脊髓)로부터 균이、머리로 드러가 발광(發狂)하게되며 중풍 반신불수가 되기도하고심장마비(心臟痲痺)뇌일혈이되여일조에 생명을일케된다 하물며 잠복하지아니하고 외부로 터지기 시작하면 연한 뼈를 침노하야 파드러가는 성질임으로 코가 부지중에 떠러지고 왼몸에 종기가 터지고 골수로 드러가 사대육신이 쑤시고저리고하야 참혹한 일생을 보내게되며 무죄한 자손에게 유전하야 적악(積惡)하게되니 엇지 두렵지 아니하리오 금은 보화보다도 소중한것은우리의신체오 우리의생명이다

치료계의광명

육체를 갈가먹고 생명을 빼아서 인생을 여지업시 짓발버버리는 대적중에도 악독한 대적을 전멸하자 매독전멸 전인류를 구원하는 천사가왓다 과학의 위대한힘은 드디여대승리(大勝利)의함성(喊聲)을 치고 세상에나왓다 수만흔 환자의 물밀듯하는 감사의 편지가 산갓치 싸엿스니 완전히 악독한 병마를 정복(征服)하고마럿다

푸로다가제일

매독、당창에는 이라는말이 드디여 세상을 뒤흔들고마럿다 그러면 푸로다ー가엇지하야 매독을 전멸식히나 절대

특효한리유

는무엇인가 일、내복하야 합리적흡수(合理的吸收)즉먹은약기운이완전히흡수된다 이、그리하야 혈관을통하야 피를맑게(血液淨化)하며 삼、약이혈액중의 백혈구(白血球)와 합력하야 병균을죽이는 힘이제일강렬한것(殺菌力强烈) 사、신진대사의 기능(代謝機能)이 특수함으로 당창어러진데라도곳새살이나서낫게되고(筋肉蘇生) 오、병독을 박그로내ㅣ모는 성질이강하고 속함으로내장에 병독까지속속드리 업새게되고 륙、「주사」는 피속에 병독균을마취(魔醉)하게할뿐이나 이약은 골수에깁히 백인균까지전멸식힘으로 신체내에 잇는독이완전히치료된다 칠、그럼으로 절대로 재발 되지아니한다 (絶對不再發) 팔、약성질이 제일강하고도 우량함으로 결코부작용이나 구감이나거나 하는일이업다 구、균을죽이는 힘이강하고 독을내모는 작용이강대함으로 치료하는 기간이아조속합니다 (治療短期間) 일수일이면 대효가남니다

일각의지체가 십년의후회

다음가튼증세에 쓰시오 남녀간 국부가 헐고、좁쌀가티도든분、몸이가려웁고 여기저기종기가나는분、눈이 회미하고이가(齒)솟는분、얼골에 여드름가티 마니 나는분머리가 빠지고 코가허는분 팔다리가 쑤시고저리 고등창 이러진분 태독、창독、습독、양매독、선천매독、감창、일절매독성제증 신성당에서책임지고드리오니곳쓰시오

꼭주의하여야할일

약만전문으로하는약전문회사의약이일심전력(全力)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는고로 효력이제일 입니다 무순 회사약품부니 무순상점이니 하는데서 파는것은 약이전문이아닌고로 약효가실하다고 할수업습니다 그리고 과학과의약학(科學과醫藥學)이 제일발달된 선진국의 약품을 즉접 수입하는 약이조흔약이고갑도쌈니다 조선안에서 바더서파는것은 벳싸고 무효한무명품이 만습니다 주의하서야합니다 좀잘생각하여 보시오、또요지음 되지못한 약을 가지고별별수단을 다부려광고하는자들이만으니 주의하시오신성당을모방하고자하는광고에 속지마시오、장담하고절대보증하고드리는약은신성당박게 업습니다

약가

완고증에 십오원
중증에 십원
보통에 칠원
경증예방에 오원
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 인환 삼십오전
다른영과다르니「십오원짜리」를 쓰시고 후환을업새시오

支社長大募集
(大特典附) 規定書郵送

漢藥도具備
漢藥은朝鮮서神聖堂이 第一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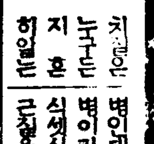
資本金百萬圓
朝鮮第一가는 큰藥業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서대문제일큰헌벽돌집

元祖 ケンオー 경오ー王 本舖 鮮滿總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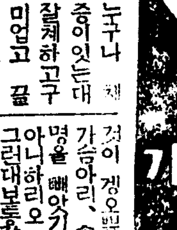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三四九九番・光化門一〇七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私書函西大門第二號光化門第四五號



치질엔 엥구루가 제일

치질은ㅣ 병이대 대단히괴롭고 더러운 병이라 심하면 홍문에 큰구멍이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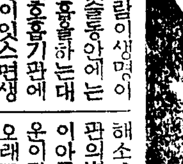
[illegible] 엥구루는 [illegible] 성서대문지성당으로 주문하시오 [illegible] 삼원[illegible]쓰시오



속병체증엔 경오ー가 제일

누구나 체증이잇는대 잘제하고구 미업고 끌끌하고 신 [illegible] 속병、체적이되여 생명을 빼앗기게되니 엇지두려웁지 아니하리오 그런대보통가시 [illegible] 경오ー(KENGO)는 [illegible] 위장의근본조직을다시 소생식히고 소화[illegible]

[illegible] 세계에서유명한「휘꿰ー」제가만히들고 [illegible] 위장약이다 [illegible] 『경오ー』 [illegible]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병이심하면 오원분을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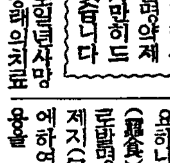


해소기침엔 에치쎄ー가 제일

사람이생명이 잇슬동안에는 호흡을하는대 이호흡기관에 병이잇스면생 명에관계가된 다。

해소、기침、담 천촉증은호흡기관의병이다감기로기침을하야도목이아푸고 끌이쏘다지는것갓고기운이탈진하는대 해소기침병으로오래고생하면 갈수록하는것이다 심하면제일무서운 폐병으로변하기쉽고폐염이되여위험한일도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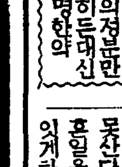
신성당명약『에치쎄ー』(H.C.B.)는 [illegible] 경성서대문지성당으로 주문하시오 [illegible] 이좀심하면 오원분을쓰시오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세ー NAOPER 가 제일

효력보증 세계에서 유명한신 발명약제 가만히드 렷습니다

폐병은 난치의병으로일년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데종래의치료가불완전하얏다 [illegible] 『나오뻬ー』를꼭쓰시오 [illegible]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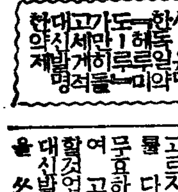


보양을보하는 젊어지는약 가이자ー KAIZER 가제일

동서양에서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드는대신 발명한약

사람은 보통배꼽까지는수명이 잇스나 정력이 쇠약하야 오래못산다 원기가왕성하야 하고십흔일을하고 인생향락도 영구히 잇게하여야한다 새로 발명한

가이자ー는신체의쇠약한 조직을다시 소생식히는 보혈보양제이여 저는약으로 양기를 왕성하게하고 정력을 씩씩하게하는 명약이다 [illegible]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중세가좀심하면 이십원짜리를 쓰시오



림질 대하증 냉병엔 구로벨 KUROBER 이제일

한서전세계유명약 [illegible]

남녀 만성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냉병 [illegible] 구로벨(KUROBER) [illegible]

약은 또다시업다는 [illegible]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비밀히보내드립니다 병이좀심하면십오원짜리가 조습니다

少年朝鮮日報

어느편이올흘까요 울면은슬프고 우스면기쁘고

기쁘니웃고 슬프니울고

누구든지 기쁘니까 웃고 슬프니까 운다고 생각합니다。생각편이 아니요 사실로 그럿습니다。그러나 젬스라는 심리학자(心理學者)가 연구한 결과는 아조그와 뒤쪽이라는것이 발견되얏습니다。그전 무슨 소린고한즉 웃음을 웃으니까 기쁘고 울음을 우니까 슬프다는것입니다。

즉 여기 기쁜 일이 하나 생기지 안습니까 몬저 웃음을 웃는 근육이 자극을바다서 웃음을 웃게되고 거기딸아서 기쁜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또그와 반대로 슬픈 일이 하나 생기지 안습니까 그역시 몬저 울게되고 우는데 딸아서 슬픈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참말로 허무한 말 갓지만 반듯이 그러치도 안습니다 그것이 허무치안한 증거로 남이우는데 뎡달아 울다보면 공연히 슬픈생각이 들어서 참말눈물을 훌리게되고 또 남이 웃는데 뎡달아웃다 보면그역시 까닭업는 기쁨이 솟아서정짜웃음을웃게 되는 것입니다。그편이 아닙니다。최면술(催眠術)을 바든 사람더러 웃어라 해서 웃기고울어라 해서 울리어노흔즉 그사람은 아무까닭도 업시 웃고 우는데 딸아 슬펏다 기뻣다한답니다。

기쁘니까 웃고 슬프니까 운다는 것을 중심설(中心說)이라고하고 웃으니까 기쁘고우니까 슬프다는 것을의주설(外周說)이라고합니다 어느편이 올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여러 학자의 말슴이 만습니다만은 외주설도과이 맹랑한 헷소리만이 아닌것은 사실입니다。

歷史이야기

최충

文一平先生

최충(崔冲)이란분은 고려문종때 이름 노픈 학자입니다。

그당시 불교(佛敎)의 대표적인물로 대각국사가 잇슨것과 가티 유교(儒敎)의 대표적인물로 최충이 잇섯습니다。

최충선생은 학자뿐이 아닙니다。그는 학자로서정치가(政治家)요 또 교육가(敎育家)이엿습니다。

최충선생은 일직 조정에나가 벼슬할제목종(穆宗)이란 임금 부터 문종이란 임금까지 다섯임금을 도왓는데 그벼슬이 정승에 이르렷고 나라에 공노도적지 아니하엿습니다。

그러나 최충선생의 큰공노는 정치 보다도 교육에 잇섯습니다。

그때 고려교육 으로 말하면 여러햇동안 난리가 나서 아주말이못되엿는데 이것을 다시 일으켜 노흔분이 곳최충선생입니다。

난리가 머진뒤 나라에서도 미처하지 못하는 교육을 최충선생은 한개인으로 능히 햇스니 얼마나 장합니까。최충선생은 스스로 생각하되 영원대계는 정치보다 교육에 잇다고하야 벼슬을내노코 학교를 세워 인재(人才)를 걸럿습니다。

사기(史記)에는이러한말이적혀잇습니다。최충선생이생도를모와 가르침을 게을리 아니하니 생도가 사방에서 구름처럼 만히 모여드러 학교에 사람이넘치게되므로 학교를 또다시세우고 학교를 또다시세우고하야 모두 아홉학교가 되엿다고합니다。이아홉학교에서 배우는 생도들을 최공의 제자라고하야 세상사람이 영광으로 여엿습니다。이때 최충선생이외에 다른학자들도 최충선생을 본바더 사립(私立)학교를맨드는이가 여기저기서 작고생겨나 모두 열한분어 잇섯스나 최충선생이 그중에 제일이엿스며최충선생의학문과공노가얼마나거룩하고크던지세상에서그를일커러해동공자(海東孔子)라고까지 하엿습니다。

"아버지찻느라고 강원도를헤맷다"

칠그릇을파라고학을하면서도 효성이지극한申福均군

곤난한것을 이겨나가야만합니다 우리는 언제던지 이러한정신을 가지고 자라야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동모가운데 이러케 갸륵한정신을 가지고자라나는 신복균(申福均) 동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겟습니다。

신군은 금년열다섯살입니다 경성보인보통학교(輔仁普通學校)오학년에 다닙니다 네살적에 그의아버지는 집을나가서 소식이 업고 어머님은 사기그릇장사를 하야 그들사남매를 길러주엇습니다

아모리 가난하나 배우지안코면살수업다는것을 깨달은 어머님은 그들보인보통학교에 너허주엇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날로 더하야 끄니를 이을도리가 업섯스니 학교도 중지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굶어가면서도 배우지안흐면 안된다고 생각한 신군은 한번도 빼지안코 학교엘다녓습니다 철이들고 장성해지면 질수록 신군의가슴속에서 용소슴치는것은 그리운아버지를 만나보고시픈마음이엿습니다 어떠케 하면 그리운아버지를 만나볼수잇슬가 학교만마치면 아버지를 차저서 길떠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게속해왓습니다

그러던가운데 신군이 열네살적인 작년가을 그리운아버지가 강원도어느곳에서 병으로 신음한다는 소식이 들려왓습니다。

곳뛰여가고 시펏스나 주머니에는 일전한푼의돈이 업섯습니다 그냥이라도 떠나겟다는 신군의 정경을본 가튼반동모들은 넉넉지못한 주머니를 터러서얼마간의 로자와 지도한장을 사서주엇습니다。

지도한장을 품에 너코 동모들의 따듯한동정에 눈물을흘리면서『고맙다 나는꼭아버지를차저보고 올것이다』하고 동모들의 손목을 잡고인사하엿습니다

알지 못할 땅을 차저서 어린소년은 집행이를 집고나섯습니다

그는길가운데 여러가지곤난이 잇섯스나 아버지를만날것과 동모들의고마운은혜에 기운을어더서 꾸준히차저다녓습니다 저성이 지극하면 하는님이 감동하신다는말파가리 신군은간신히강원도의 어느산중에서 아버지를 만낫습니다 꿈이야기처럼 신기하고반가웟스나 그리웁던아버지는 복마염이라는병으로 꼼작못하고 누어잇섯습니다。

객지에서 혼자손으로 간호할 도리가업는 신군은 아버지를겨우 붓들고돈와서 집으로도라왓습니다。

집에와서는 가난한가운데약살도올 제손으로 버려다가 보양하고 자기의 어린창자는 끄니를 굶엇습니다。

그뿐아니라 삼사일식 물한복음마시지안코 아버지의병이낫도록 해달라고 지성을 다하야 빌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엇습니다。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뒤에 신군은 학교엘 다니는 한편방학때면 어머님과함께 사기그릇장사를하려 먼시골로 다녀오고 공부하는 여가를타서 간단한노리개가튼것을 야시장에서 팔아가면서 학비와생활비를 제손으로 발게되엿습니다

이러한곤난을 바드면서도 공부는 언제든지 우등으로만 진급하며 모범급장으로 동무와선생님의 신망을밧고잇습니다

무슨일이든지 남에게 지지안코라는성미가 굿세여서 재작년가을 조선일보주최의 학생미술전람회에 출품한도화는 연필만 이백장을 그리엿스며 그때도우선(優選)으로 상을탓습니다。

그뿐아니라 음악에도 천재의 소질이잇다고합니다

(사진은 신복균군)

=동 화= 자금이생일날

崔 秉 和

오늘은 자금(滋錦)이가 열살을 마지하는 생일날 이엿습니다。맛침 오늘이 일요일이드로 은해에 다니시는 아버지 학교선생님으로 게신 어머니 유치원보모로 다니시는 고모아주머니 중학교 다니는 자근아버지 모두 노시게되여서 자금이 생일날은 아침부터 떠들석하고웅성웅성 하엿습니다。

자금이 조고마한 책상우에는 하라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주머니 자근아버지에게서 선물로 바든 여러가지 물건이 죽-벌려노혀서 자금이 마음을 한것 기뿌게 해주고 잇습니다。

자동차 팁책 그인형 병어리 돈지갑-그중에서도 자금이가제일 조하하는것은 인형이엿습니다。

이인형은 아수머니가 털실을 가지시고 손수 만드신것으로어떠케나 정성스럽고 재조것 만드시엿든지 집안사람이 모두를 아수머니 손재주에 깜작놀라시엿습니다。

자금이는 그인형을 가슴에꼭 끼여안고 그인형의뺨에 입을마추면서 고모아수머니에게 감사하다는듯시 방그레 우스면서아수머니 얼골을 치여다보앗습니다。

아수머니께서는

『자금아!그게 그러케 입부냐?』

아수머니께서는 자금이 아프로오시면서 기뿐드시 말슴하시엿습니다。

『그럼 입부지 안누。아수머니가 만드러 주엇는데…』하고아주머니 무릅에가 올라안저서 어리광을 부리엿습니다。

『자금아!오늘아버지께서 네소원을 한가지 드러주신다람。너 무슨 소원이잇니?』

『뭐? 소원을 드러주신대。』

『그래 어듸 나한테 먼저말해보렴。』

『안되요。아즉 비밀이니깐。』

『요꼼바 비밀을 다알고』

『아수머니는 날 밧낫 어린애로만 아시네。』

『자금아!내가질껏해다。용서해라。그런데 나만알고잇슬께 내귀속에다대고 말허렴。』

자금이는 조금 생각하는듯하드니

『말햇다。아수머니니깐』하고아주머니 귀에대고 무슨말인지소곤거리 엿습니다。 아수머니는 『웅!웅!』고개짓을 하시면서 우시면서

『요고시 그러생각을 다할줄아럿。』하시드니 자금이를가슴에 꽉안고 자금이 뺨에 입을맛추시엿습니다。

『그래라 참 네소원을 모다드르시면 웬집안사람이 모다 층찬하실거다。』

그날아츰 자금이는 딸로 커다란 동근소반에 여러가지 맛잇는 음식이 그득 노혀잇섯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눈아페는 학교갈때마다 보는 넌흔마당러 토막집아페 오무루 떨고잇는어린남매가 모혀왓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가고풀까?』

자금이는 그오누이를 볼때마다 이러케 속으로 가엽시 생각하고 지나갓습니다。

『아버지!오늘은 내생일이죠。그럼 내소원을 하나 드러주세요。』

『너 누구안테 밤서 이야기를 드러구나。그래라 어디 네소원을 하나 드러보자。』여러어른들의 눈은 일제히 자금이의얼굴로 쏠리엿습니다。

『저요。큰마당러 토막집사는아이에게 아춤밥을 맥일레예요아버지 팬찬조?』자금이는 얼굴이 살작 붉거지면서 말하얏습니다

여러어른들은 자금이말을듯고 기특도하고 감격이되시여서 모다들 충찬하시고 또 자금이가 어려운사람을 동정하는 그마음씨를 대견하게 생각하시엿습니다

물론 자금이소원은 곳이루워저서 토막집오누이는 자금이의 정성스러운 대접을바들뿐 아니라 자동차 거림책 벙어리 돈지갑을 악겸업이 주엇습니다。책상우에는 인형만 홀로 쓸쓸하게 서잇섯습니다

그날저녁때 자금이 책상위에는 아츰보다더 찬란하게 여러가지 작난감이 자금이를 더한층기뿌게하야 주엇습니다 (쯧)

나는네가 제일정답다

동물에게도애정의표정

여러분이 친한동무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나어머니께서 귀여워하실때 머리도쓰다듬어주시고 뺨도 톡톡처주시지요。그리고 여러분 동생이 재롱을 부리면 여러분은 그것을보다가 그만 귀여워서 입도 맛추어주고 뺨도대고 부비지 안습니까 그래서 귀엽다거나 깃부다거나할때 입도 맛추고 뺨도 대고부비는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하는것인데이러한일은 우리사람만 그런것이아니라 저 개나 곰이나 말이나 코키리나 이러한 동물들도하는것입니다。더구나 우리사람들은 때로는 그다지 귀엽지도안코깃부지안컨마는 이런눈치 저런눈치 보아가면서 허는수업시 귀여워하고 기뻐하는 시늉을 하지아니하면 안될때도잇지마는 이러한 동물들은 그야말로 제마음에 기뻐거나 제보기에 귀여우면 남들이야 보거나 말거나 그만 조하 못견듸면서 입도 맛추고 뺨도 부비고 합니다 이제 이사진을 보시면 다알겟지마는 입을맛춘다거나 뺨을 대이고 부비는것이 결코 우리사람들만하는것이아니라 동물들도 한다는것을 알어두십시오

그러므로 동물이라고 해서 인정도업는 천한것으로 알것이아니라 실상인즉동물도우리사람들과 가티인정도 잇고 사랑도 잇다는것을알수가잇습니다。

그러면자!사진을보십시오

첫재 원숭이 내외 간에 껴안고 입맛추는것을보십시오 파파틀은것들이 그래도 무슨재미가 아수 정답게입을맛추지안슴니까?

둘재는 곰의입마추는것입니다。

얼른보면 씨름이나 하는것갓지마는 실상은 그런것이아니라 한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엉켜 사정모를고 그만 이러케 껴안고 언제나 서로 떠러지지 안케 되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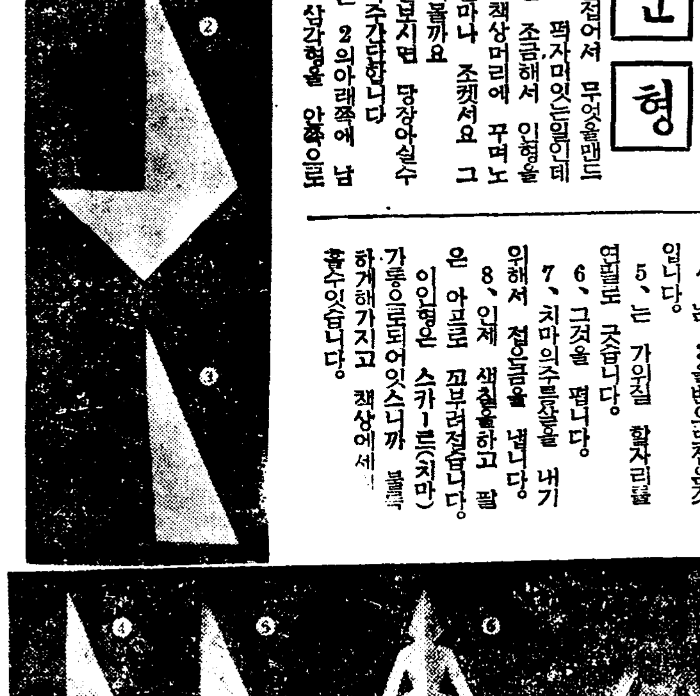
셋재가 코키리입맛추는것인데 코키리가 입을 맛추자면 대체 그 긴코를 어떠케해야할까요、아모리해도 서로 가려고처서 잘맛추어지지 안흐니까 애라 비러먹을거 서로코를 휘휘칭칭감어나보자하고 이러케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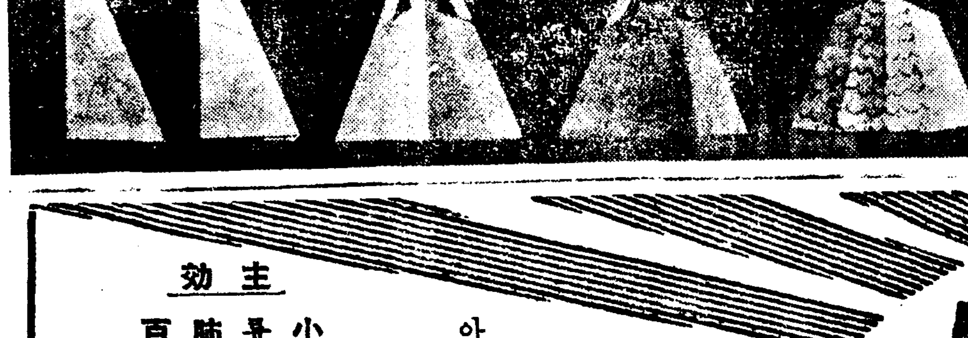
넷재 말이 입을맛춥니다 저편은 조금서 못견듸는모양이나 허버러지는중이라른지 드러나 잇볼이 라른지어드로보아도 그다지 귀엽지는못합니다。

다섯재는 낙타입니다 남들이볼세라 말세라 아주붓그러워하면서도 그래도 귀엽고사랑스러우니까 이러케 입을 맛춥니다。

끄트로가 쉐파-드개가서로 뺨을대이고 부비는것입니다。마치 무슨 귀ㅅ속말도 하는것갓습니다。

종이접기 인형





종이를접어서 무엇을맨드는것만도 퍽자미잇는일인데 가위질을 조금해서 인형을 맨드러 책상머리에 꾸며노흐면 얼마나 조켓서요 그럼한번해볼까요

그림을보시면 당장아실수 잇게 아주간단합니다

3、은 2의아래쪽에 남어잇는 삼각형을 안쪽으로접어 너흔것입니다。

4、는 3을반으로접은것입니다。

5、는 가위질 할자리를 연필로 긋습니다。

6、그것을 폅니다。

7、치마의주름살을 내기위해서 접는금을 넘니다。

8、인제 색칠을하고 팔은 아프로 꾸부려접습니다。

이인형은 스카-트(치마)가통으로되어잇스니까 불쑥하게해가지고 책상에세울수잇습니다。

자미잇는유희

일곱째번『빼스』

이번엔 또다시 뺑둘러 안집시다요 그리고는 누구던지 먼저시작해『하나』하고 셈을세시요 그다음 둘、셋 이러케 모조리 세여돌아 갑니다 그래 넷 다섯、여섯、일곱번째가서는 일곱대신에『빼스』그럽니다 그다음 여덟、아홉、열、열하나、열둘、열셋、열넷『빼스』……스물한재번에『빼스』일곱번째 될때마다(일곱의배수)『빼스』를 부르는데 사람수효가 만치못하면 되집허도 조습니다 이것은 서양애들이 곳잘히 하는 노리라는데『빼쓰』란 그무슨뜻인지 알길이 업습니다만 하여튼 재미만 날뿐아니라 산술공부도 된다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꾸자꾸 빨리 세어 불리노라면 불리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면 불리는 사람은 또 벌을 쓰지요이번엔팔 불려가며 절한번씩 바드십시다 정신 안차리면 얼굴이 빨개질겝요。

○……○

압집동무 뒷집동무、
억개동무 사발동무、
잘들 놀으십시요 발볼도록 굽으십시요

속모르는분

편을갈려가지고 줄다리기를하는줄은 모르시고 동리마나님이 와서 하시는 말슴

『애들아 그법석들을 하지말고 바써 노는타부나』

키큰아버지

복동『우리아버지는 키가대단히 크단다 이평풍도 다넘겨다본단다。』

복남『우리아버지도키가 크단다 내가 모자를씨우려니까안되더라』

야단을치니

선생『바다에서 물결이 출렁대는것은 무슨까닭이냐』

학생『선생님-저바다에서 물고기가 야단을 치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コドモのかぜねつに

幼兒의熱은 突發한다!

반다시「オイン」을 먹어주십시요

大人用의藥은너무 强해서각금中毒할危險이잇습니다

オイン

オイン은…

小兒의體質에適應하야 絶對로副作用이업고 小量이므로먹기쉽고 슬슬熱을내려서 速히잘듯는小兒藥입니다

아이잇는家庭에 반다시一瓶!

主効
小兒의감기열
류행감기
肺炎、麻疹
百日咳
其他一般熱에良好

價格 0.20 0.30 0.50 1.00

各地藥店에잇슴

發賣 大阪 東京 丹平商會

學藝

二月創作評 讀者大衆과文學的修業 (五)

嚴興燮

女子가 小說을 쓴다고 해서 『女流作家』란 『女流』의冠詞를 부친것은 確實히 惡趣 女性侮辱을조와하는어떤 惡德 저내리스트의 惡戲로만 解釋할것이아니다 作家면 그저 作家일것이지왜 女子가小說을쓰는 境遇에만 世上에선『女流』作家란 冠詞를나리는것인가 女子로서 小說을쓰는사람을 『女流作家』라면 男子로서 小說을쓰는사람은『男性作家』라거나『男流作家』라해야 올을일이다.

그러치만 그러한冠詞를부치지 안는것은 무슨理由에선가? 여기에는 一般的으로 性的差異에서 오는女子와 男子와의 智能의優劣問題가 가장問題되기때문이라고 解釋할수밧게업다.

女流作家란사람들이 一般的으로보아 男性作家의水準을 凌駕하지못하고 다만 微弱한存在로써 겨우地位를保全하고잇는것을 보면 實로딱한일이다.

이말은決코 내가 女性作家를 侮辱하기爲해서 또는 過小評價하기爲해서 하는소리가 아니다 或是 그러케誤解해들으면 오히려조타. 不快히생각하면더조타 이것이動機가되여 좀더 自己自身들의 力量을硏磨하고 視野를 넓히며 覇氣를가지고 男性作家를 壓倒할만한水準에 일으르면 더욱조타.

이말은 決코 張德祚氏한사람을相對하고하는말이아니라 女流作家一般을相對하고하는말이다. 女流作家라면 적어도 그作品에 잇서서 女流作家로서의 獨特한 芳香을 내품지 안흐면안된다. 그것으로하여곰 男性作家의 水準을 뛰여넘을만한 傑作은 바라기 힘든다하더라도 男性作家로서 到底히 따르지못할 女性心理와 性格의 展開이라든지 女子가본 男子心理와性格의 새로운 發見이라든지事件展開에 잇서서나 人物配置에 잇서서나 描寫에잇서서나 언제나男性作家에게 追從할게 아니라 女流作家獨特한 新境地의 開拓이업스면 女流作家로서 文化的인 何等의存在理由도업게된다.

女流作家에對한 이야기가 너무길어젓다 이곳에서 할이야기가 아님으로 다음機會를 밀으고 다시以上에서 取扱한 三篇의作品에對하야 添言하기로하자

나는 더詳細하게 더支離하게 以上의 三篇에對하야 言及하고 십지는 안흐나 세作家의 다음 作品을 期待하는 親誠된 마음에서 極히 重要하다고 생각는 몃가지 付託을해두고저한다

勿論이付託은 以上의 三作家만을 相對해서 하는말이아니다 所謂 現文壇의 中堅作家라는 사람들또는 新進作家 또는아프로 文學의길을 걸으려는 사람을 相對해서 하는말이다.

『葬花甁』이나 『林正浩』나 『寒菊』가 嚴正한立場에서 모두우리들의 失望를사게한 큰原因이 어디에잇슬가?

왜? 接近해야할 讀者大衆과分離되려는 危險性을 이三作品은 犯하고잇슬가?

『葬花甁』에 잇서서 너무나僭越함은 作家의 生活經驗『林正浩』에잇서서의 너무나 無氣力한 作家의 技術不足『寒菊』에잇서서의 너무도 安價의 自然主義的低俗趣味! 이것들은모두 그作品으로하여금 讀者大衆을 分離시키려는 危險性을 가진것들이다.

作家가 作品을쓸때 作家는언제나 제固執대로 제自由대로제 趣味에맛는데서 取材하고 描寫하게되는것이며 또한 그러해야 되는것이지만 그固執과 그自由와 그取材範圍가 늘 讀者大衆을 對象으로 하는데서부터 出發하지안허서는안된다.

어떤作家가 그作品製作에 잇서서 讀者大衆을 對象으로햇느냐? 안햇느냐?는 問題는 그作家가文學的修業이 기프냐 여트냐?는데에 歸結된다.

作家의文學的修業이 기프면기플수록 그作家의作品은 讀者大衆과의 關聯이기프다는것이다.

그作家의文學的修業의 기피란것은 그作家의 平凡하지안흔生活의體驗과 平凡하지안흔 思想의體驗의기피를 말하는것이다.

勿論 價値잇는 生活의 體驗 價値잇는 思想의 體驗에서 出發點을어든 文學的修業을 가진 作家라야만 그作品이 亦是 價値잇는 作品이 될것이다.

價値잇는 生活의體驗!

價値잇는 思想의體驗!

이것은 두개인듯하면서도 實相은 한개다. 生活卽思想、思想卽生活 作家는 언제나 이 두개이면서도 한개인 生活의體驗과 思想의體驗속에서 不絶히 眞實을爲하야 苦悶하는 不幸兒여야하며 不絶히 眞理를 探究하는 새時代의 精神的 技師여야할것이다.

─二月十八日─

忙中閑錄 일허바린十年 (三)

蔡萬植

요새는 일허버린 十年에 未련이저서 못하겟다 참말 아까운 十年이엇거니 무엇이고 十年을 專工하면 入神을 하는법이라는데 눈 먼 등소쟁이만도 못하구고나 이리 생각하면 당장 손人등을 꺽고십다.

참말이지 허망한 노릇이다. 돈을 얻마고 한푹 뭉예지니고 다니면서 쓰다가 며칠 지난뒤에 보면 아무데도 모개지게는지 要緊하게는지 쓴 자리는업는데 돈은 다 업서진 그러때처럼 허망하다. 미상불 나는 十年의 歲月을 마음 헤푼사람이 돈을 浪費하듯이 헤푸게 보내바렷다.

지나간 甲子乙丑 그무렵으로부터 어짝 壬申癸酉 그어림까지 十年 文學을 한답시네 小說을쓴답네 伏案書名으로 作家行世는햇서도 맨지에 자랑하여 자랑 文學은 하나도 한것이업다. 한것이 업스니까 남은것도 업슬건 勿論이다. 을 멀어야 아무것도업다.

十年 文學을 햇다는것이 結局 그러해서 남의 아페다가 (자 이것은 그래도…하고) 내노하 부끄럽지 안흘 作品 멧篇이업다.

이거무슨 慘憺한 꼴불이냐다

가령 그것이 文壇의 水準을 凌駕할 出衆한 作品이 못되더래도 조타. 그저 水準에서 멀어지지만 안는것으로 멧篇이면 그런대루 足하고 同時에 十餘年 文學에 浪費한 歲月도헛일것이다. 그러것을 어쩌면 어떤대를 헤가지고 體面다맛조차 못해 노하단 말인지!

남들은 보면 제各其 제멋노릇을 다들 해 노핫다. 그네들은 어떠케되어거나 적어든 만헛든間 또 잘햇든 못햇든間 文學을爲하야 한목의 役割들은 치루엇고 그래서 文學史의 한 귀퉁이를 떼어고 온 形蹟이分明하다. 시방도 를 그러고잇고 그걸로써 또한 무던하다.

그러하지 아무리 훌터보아야 나처럼 제노릇을 못한 作家는 別반 드물성시프다.

萬若 나以外에도 그러한 慘憺한 作家가 더러 잇다고하면 그사람 自身도 무척 不幸한사람이려니와 文學을爲해서는 더욱 不幸한 노릇이다.

하기야 나도 지나간 十年동안 日 長篇小說이니 日 短篇小說이니 日 戱曲이니 그러한 雜稿한 이름을 가진것들을 泰서 新聞에 雜誌에 發表하기도 무엇이라고 버젓하게 作品을 헤섯고 남들이 맞는것이면 그만큼 허 안케 原稿料를 바기도 하고 하기는 해섯다.

그것들을 다 추려 모오다면 도통한 三四十篇은 될상 부루다. 그보다 조곰 더될는지도 몰은다.

中堅作家洋畫展覽會 鄭玄雄氏作 ─『白馬와少女』─

海西記遊 旅窓爐邊의閑話 (五)

朴泰遠

바그로 나오면 그곳 一帶가 이 療養院에 附屬된 農園이다. 우리는 그곳을 거닐며 暫時閑暇로운 이야기를 하엿다. 한여메 態히 小規模의 果樹園이 잇섯다. 눈나린 겨울날, 입새 떨어진 나무가지에는 勿論 배도 사과도 열리지는 안엇다. 우리는 또 牧場을 보앗다. 그것도 한가지로 規模가 적엇스나 그래도 소와 羊은 모두 몹시 드잇다. 李氏는 이곳 시중을 드는사람을 찾는 모양이엿스나、그는 종시 보이지안엇다. 李氏는 우리를 爲하여 한그릇의 갓짠 젓으로 接待하고 시펏든모양이다.

우리는 應接室로 돌아갓다. 이야기를 들으면 療養院設立十週年記念式이 돌아오는 四月에 盛大히 擧行되리라한다. 그리고그것을 機會삼어 『療養村』이란雜誌가 나올豫定인데 그編輯은李氏의 擔當이리라 한다. 그는말벗을 가지지못한 患者들이 恒常 얼마나 孤獨에 울고잇는가를 들어 부러 在京 文人들이그들을 爲하여 조흔글을 만히보내주엇스면 말한다 나는爲先내自身 이를應諾하고 또내가 익히아는 文人들에게 그뜻을 傳할것을 約束하엿다.

세사람은 南山을 다시 넘어 市內로돌아왓다 午後세時─우리는 簡單히 點心을 먹기로 하고지나는 길가에서 偶然히 發見한支那料理店으로 들어갓다. 電話로 支局長을 請하엿슬때 李氏는 安含光氏를 이야기한다. 일직이 맛난일이업는 나는 그가 이 海州에 산다는것 조차 몰랏다.

安氏는 卽時 우리에게로 왓다. 그는 評論家임에도 不拘하고 至極히 穩健한 이엿고 또 나처럼 술에 拙하다. 내가 그러한 座席에 잇서 支局長에게보다 安氏에게 좀더 好意를 느끼드라도 그것은 또한 어쩌는수 업는 노릇이다.

席上에서 支局長은 오늘 저녁車로 本社에서 販賣部長이 나려온다 한다. 그를 驛으로 마중나가는 支局長과 나는 應當行動을가티하는것이 마땅함인지 몰른다. 그러나 나를 支局長에게 紹介하여준 販賣部長을 나는 全然 모른다. 이미 支局長과 서로안 내가, 이番에는 그의紹介로 販賣部長과 서로 人事하지 안흐면 안된다는것은 至極히 可笑로운 일이다. 우리는 바그로 나와 爲先 서로 헤여지기로 하고, 李氏와 둘이서 海州道 求景을 나섯다.

한時間만큼式 떠나는 뻐스가 마악 出發한 뒤다. 李氏는 나를 爲하여 택시를불럿다. 나는 大體 驛에서부터 埠頭까지가、自動車로 몃分距離이가를 試驗할려고 주머니에서 時間의 팔뚝時計를 끄내보앗스나、얼른당도안흔 時刻을 가르치고 잇는채時計는 자고 잇섯다. 勿論 태엽은 充分히 감겨진대로다 손에들고 한번 흔드러본에 다시살펴보니、秒針이 바루 誠實하게 움지기기 始作한다 그러나 이時計는 오죽 이만한 才操만가진것이 아니다 일부러 뒷딱지를열고 내가 무어 遲速을 調節한다거나 그러지도 안엇건만 時間의 빠르고 느린것이 實로 自由自在다 나는 그것을 몰랏다 그래 수지만 못하도록 監視를 게을리 안하면 或미를주도잇스리라 생각하엿든 나는 이틀뒤 信川溫泉서 載寧가는 뻐스를 놋치고 말엇다 안해가 이러한 時計를 所重하게 擬어에 간수하여 두엇다고 곳 그몸가르처 귀모잇는 女人이라 한말은 決코 올치안흔듯십다.

×

우리──李氏와 내가 나의旅舍로 돌아온것은 일곱時가 넘엇슬때다. 暫間 안저잇는사이에 安氏가 다시 나를차저주엇다. 우리는 火爐를 끼고서 이야기가 만햇다. 安氏는 어찌면 이번봄에 東京을 밟아고 떠날지도 몰으겟다 말한다. 이미 우리가 한가지로 妻子를 가지고 잇는 그가 이제 다시뜻을 세울수잇서든 裡面에는 알고보니 人倫의 至極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잇다. 李氏도 나도함께 感激하고 安氏를爲하여 그의 앞길을祝福하여마지안햇다. 安氏가 이끄는대로 우리는料亭 東洋樓를 向하여 밤거리를 걸어갓다 午後에먹은 술이 마악 깨고난 얼굴에 쌀쌀한이過히 시끄럽지 안케 부러치는다 마열한時가 넘엇슬께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詳細는各校에直接問議)

梨花專門學校

一、募集人員 文科五十名·音樂科三十名 家事科四十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廿二日至三月廿二日

一、試驗日字 三月卅日

一、試驗場所 本校

一、試驗科目 國語 作文

─【五二】─

入學試驗準備

【國語】③

普通公普 丁明鎭 先生

【第三回】

一、次の文を讀んでそれぞれの問に答へよ。

光榮の旗よ
譽の國旗よ
あゝ櫻々の綠と青空と
明るい人の顏々と
燦然たる日章旗とに飾られた
祝日の町を感動に溢れて
私は揚々と歩いて行く

(イ)譽の國旗とはどんなことですか

(ロ)どんな感動を受けたのでせうか

二、次の──線のつけてあるところの文のわけを書きなさい

(イ)ひたすら身を慎み、書を讀みて(ロ)寸時も怠らず後京城に出でて學び、當時の(ハ)儀範たる官吏登用の(ニ)試驗に合格して官途につきしばしば(ホ)文教の重職にあたりて、其の功少からざりき。

(イ) (ロ) (ハ) (ニ) (ホ)

三、次の文中カタカナの所を漢字に改めなさい。

(イ)零下三十餘度の1アンヤ( )の氷上で文字通り2フミンフキウ( )の3カンシ( )をつゞける4ケイビ( )の辛苦は5トウテイ( )想像も及びますまい

(ロ)午前六時1レンタイ( )は2イサ( )ましく3レンペイヂヤウ( )に4セイレツ( )5しグンキ( )は6サウチヨウ( )7ならつぱの音に8ムカ( )へられアサカゼ9( )にひるがへる。レンタイチヤウ10( )は落ちついたクチヨウ11( )を以てココク12( )を13まるにノゾ( )んでのサイ14ゴ( )の15クンジ( )をロウドク( )した。

四、次の語の反對の意味の語を漢字で括弧內に書なさい。

イ進步( )ロ希望( )ハ富貴( )ニ結果( )ホ輸入( )ヘ普通( )ト增加( )チ權利( )リ進む( )ヌ出發( )

五、次の語に假名をつけよ。

1蓄積 2物思に沈む 3入道雲 4手帳 5自給自足 6濁流 7心田開發 8古事記 9雜木林 10不斷の努力 11大豆 12指揮 13稀薄 14照明彈 15繁茂期 16神秘 17養殖 18眺望 19臨終 20天氣晴朗

解答ノ部

(イ)日章旗は祝日·祭日·記念日等に揚げられて敬意及祝意をあらはし戰爭の際には眞先に占領地に揚げて國威を海外にとどろかし今や日章旗は世界のはてまで輝いて各國人が尊敬をはらつてゐるほんとにほまれ高い日本の國旗であることです。

(ロ)榮譽ある國旗と輝く日本國民として生れた誇りと感謝の有難さ。

二(イ)ひとすぢに。(ロ)すこしの間もなまけなかつた。(ハ)通りぬけるにむづかしいところ。(ニ)官につかへるみちについて (ホ)學藝を以て人を教化するおもいつとめ

三、(イ)1、暗夜 2、不眠不休 3、監視 4、警備 5、到底

(ロ)1、聯隊 2、勇ましく 3、練兵場 4、整列 5、軍旗 6、莊重 7、迎 8、朝風 9、聯隊長 10、口調 11、故國 12、臨 13、最後 14、訓示 15、朗讀

四、イ、退步 ロ、失望 ハ、貧賤 ニ、原因 ホ、輸出 ヘ、特殊 ト、減少 チ、義務 リ、退る ヌ、到着

五、(1)チクセキ (2)モノオモヒニシヅむ (3)ニウドウグモ (4)テチヤウ (5)ジキウジソク (6)ダクリウ (7)シンデンカイハツ (8)コジキ (9)ゾウキバヤシ (10)フダンのドリヨク (11)ダイズ (12)シキ (13)キハク (14)セウメイダン (15)ハンモキ (16)シンピ (17)ヨウショク (18)チヨウボウ (19)リンジウ (20)テンキセイロウ。

【算術】③

加明學校 盧在億 先生

(問題)

50a되는畓에서白米22·5包를가첫스니 白米108包袋를나게하려면 畓이몃ha 이되여야하겟는가

(注意)

(1) 白米分量과畓의面積과는正比例되는것

(2) ha은a의100倍되는것

(解)

22·5包 50a 22·5:108=50:X

108包 Xa

(正) $X=\frac{108\times50}{22\cdot5}=\frac{108\times500}{225}$

$=240$

$240a=2\cdot4ha$

(答) 2·4ha

(問題)

1時20分間에어떤冊의$\frac{2}{5}$를읽엇다하니 이대로읽어간다하면남어지를다읽는데 時間은얼마나걸릴까

(注意)

(1) 冊의全페지數를1로볼일

(2) 남어지페지數는 $1-\frac{2}{5}=\frac{3}{5}$

(3) 1時20分은 60+20=80分으로計算할일

(解)

$\frac{2}{5}$ 80分 $\frac{2}{5}:\frac{3}{5}=80:x$

$\frac{3}{5}$ x分 $x=\frac{\frac{3}{5}\times80}{\frac{2}{5}}$

(正) $=\frac{3}{5}\times80\times\frac{5}{2}$

$=120$

120分=2時

(答) 2時

(問題)

人夫6人이12日間걸릴일을8日間에다마치려면몃사람의人夫를쓰겟는가

(注意)

(1) 人夫의多少와日數의多少를勿論하고일은一定한것

(2) 일이一定하니人夫가만흐면日數가적게걸리고人夫가적으면日數가만이걸릴것卽人夫數와日數는反比例됨

(解)

12日 6人 8:12=6:x

8日 x人 $x=\frac{12\times6}{8}=9$

(反)

(答) 9人

(問題)

다음比를整數比로簡單히곳처라

(1) $\frac{5}{12}:\frac{23}{30}$ (2) 7·2:0·8

(解答)

(1) 12와30의最小公倍數는60

$\frac{5}{12}:\frac{23}{30}=(\frac{5}{12}\times60):(\frac{23}{30}\times60)$

$=25:46$.

(2) 小數를업새기위하야10倍

$7\cdot2:0\cdot8=72:8=(72\div8):(8\div8)=9:1$

(問題)

1人이1日에9dl式먹어서 187日間먹을糧食이잇스니가른人數가하루에한 사람이 8.5dl式먹는다하면몃날이나먹을까

(注意)

(1) 糧食의分量은一定하야잇음

(2) 日數와먹는分量과는反比例됨

(解)

9dl 187日 8·5:9=187:x

8·5dl x日 $x=\frac{9\times187}{8\cdot5}$

(反)

$=\frac{18\times11}{1}=198$

(答) 198日

(問題)

比例式풀기

(1) $4\frac{1}{3}:3=x:18$

(2) $7:9=x:2.4$

(解答)

(1) $x=\frac{4\frac{1}{3}\times18}{3}=(4\frac{1}{3}\times18)\div3=\frac{13\times18}{3}\times\frac{1}{3}=\frac{13\times18}{3\times3}=26$

(2) $x=\frac{7\times2\cdot4}{9}=\frac{7\times24}{90}=\frac{28}{15}=1\frac{13}{15}$

【口頭試問】③

校洞公普 權寧壽 先生

【第一部】

(1)君はどんな運動がすきですか

答(自分の好きな運動を答へる)

(2)君の一番好きな學科は何ですか。

答『 』が好きでございます。

(3)一番きらひな學科は何ですか

答 別にございません。

(4)雜誌を讀みますか。どんな雜誌ですか。

答(適當に答へる。)

(5)自分の長所と思ふことを言つてごらん。

答 長所といふ程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 』することがすきです。

(6)君のお父さんのお名前は。

(イ)お年は幾つですか。

(ロ)どんな職業ですか。

(ハ)どこの學校を出られたか。

(ニ)家族は何人か。

(ホ)學資金は誰が出しますか。

(7)お家に神棚がありますか。

答(正直に答へる。ない時は『これから神棚を設けて大麻を奉祀するつもりです。』と答へる。)

(8)出身學校はどこか。

答『 』學校でございます。

(9)君の學校の校長先生は。六年の受持先生は。

答『 』先生です。

(10)なぜ本校を志望したか。

答(適當に答へる)

【第二部】

(1)我が國の最初の天皇はどなたですか。

答 神武天皇樣です。

(2)紀元節は何時で、どういふ日か。

答 二月十一日で、神武天皇が大和の地方を御平定あそばされて、橿原宮で第一代の天皇の御位につかれ、天照大神のお定めになつた我が帝國の基をいよいよ固くあそばされたことをお祝ひする日です。

(3)今年は紀元何年か。

答 紀元二千五百九十八年です

(4)神武天皇はどこにお祀り申してあるか。

答 大和の橿原神宮にお祀り申してあります。

(5)草薙劍はどこにお祀りしてあるか。

答 熱田神宮にお祀してあります。

(6)昔朝鮮にあつた三國の名をいへ。

答 新羅、百濟、高句麗の三國がありました。

(7)新羅の國の都はどこにあつたか。

答 慶州でありました。

(8)儒教は誰の教か。

答 孔子、孟子樣の教です。

(9)我が國にどの天皇の御代に始めて學問が傳はりましたか。

答 應神天皇の御代です。

(10)千字文や論語を應神天皇に獻上したのはどの國の人で何といふ人でしたか。

答 百濟の國の人で王仁といふ人です

살결을본바탕부터곱게하고만드는

하로에 두번 三四分치료면된다

어여쁨과 매력을 늘보존하실여러분! 깁뿐소식이잇읍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三四分치료로 살결이 근본적으로 곱고히게되는 新家庭美顔療法이발명되엇읍니다 즉 분단장(白粉 크림 클분등)을않고라도 늘 어여뿐자태를 보존하실수잇으며 요새같은치위에 크는살결을보호하고 얼굴에생긴 잡티와여드름 잔주름을없새고 맛사-지료법의 대용이되는미안료법입니다

「레온洗顔크림」은 구미각국의미안약계에서 유명한活性고로이도硫黄에다 동양인의살결에 맛당한 귀중한약료를섞거서만든 귀중한약용 화장약임으로 일본각지를위시로 우리조선의 신가정 녀학생게에서 일대환성으로 감사의 稱讚을받고잇는 약입니다 그런므로 活性고로이도硫黄의 美白殺菌作用으로 얼골에생긴 버점·여드름·죽은깨·기미·잡티가 없서지고 피부영양(홀몬)을주어서 잔주름·살결이거칠어진것을 도로회복식히고 얼골색이거문것을 히게만들며 재래의화장품으로생긴 연독을다스려줍니다 하로바삐 자거만어가진 어여뿐살결을 도로찻으실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레온洗顔크림」을 사용하시사 靑春의우숨과 깁븜을도로 차저주시기바람니다 약가─普通瓶(약한달분)一圓四十錢 德用瓶三圓四十錢이오며 全道有名한藥店 화장품점에서판매합니다만 매절된때에는 송료삼십전(우표)을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하옵니다 통지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된「新家庭美顔療法」이란귀중한책을 거저드림니다

專賣特許 活性고로이도硫黄保有·强力美白素

레온세안크림

SENGAN

發賣元 東京市神田區小川町三丁目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八八一番

制壓하라結核

結核 呼吸器

冬季는皮膚의抵抗力減弱으로感冒에걸리기쉽고特히呼吸器系疾患의經過를增惡케하기쉽습니다 구아야고-르부르도-제는造血아옷호르몬·부루도-제의使命에依하야食慾을振起하고新陳代謝를亢進하고全身의抵抗力을强化함과함께구아야고-르의抱合에依하야結核菌의活動을阻止하고咳嗽를鎭定하야微熱을업새고治療와榮養充實의二大作用을잘發揮하는故로寒氣及氣候激變期에잇서서呼吸器疾患의治療에賞用됩니다

適應症 肺結核 肋膜炎 肺尖加答兒 慢性氣管枝炎 其他呼吸器系諸疾患

(小瓶二·六〇 大瓶四·三〇)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구아야고-르 부루도-제

B1307

藤澤藥品

醫學博士小田俊三先生『呼吸器病の養生法』御申込み次第無代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京城府西小門町

娛樂

마르코·포ー로傳 世界的宣傳計畫

피라밋드에 네온싸인

무엇이든지 奇想天外로 떠벌리는 미국에 새로운 手法을 考案해내서 世界를 놀라게하는 양키ー들이 또하나 奇拔한 新手法의 宣傳法을 創案하여내엇다

게ー리ー·쿠ー퍼ー主演의 스펙타클 『마르코포ー로傳』을 製作한 유나이트의 製作者 사뮤엘·골드윈은 埃及의 沙漠에 잇는 피라밋드의 壁面에다가 『마르코포ー로傳』이라는 커다란 네온사인을 廣告해서 大宣傳을 하려고 피라밋드의 壁面借用을 申請해서 埃及政府로 唐慌하게 만드럿다.

피라밋드라고하면 다아는바와가티 巨大한 古代의 遺物인 만큼 여기에 네온·사인을 備設하면 스에즈運河를 通航하는汽船中에서도 똑똑이 보힘으로 埃及의 沙漠에서 스에즈運河를 往來하는 世界各國의 船舶에 大宣傳을 하려고한다

十九日(土曜)

◇午後六時 어린이科學『植物들의呼吸』 朴萬奎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十一) 崔昶元
◇同七時四〇分 時事解說 朝鮮日報 咸尙勳
◇同八時一〇分 愛國行進曲工夫 愛國行進曲 內閣情報部撰定 景明合唱團 指揮 朴景嬉
◇同八時二五分 漫談 黃材景
◇同八時五五分 新民謠 李眞紅 冠簫 崔壽成 細笛 姜鶴洙
同九時一五分 大笒獨奏 一、平調會相 二、淸聲 자진한닙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土曜코ー서ー트
◇同六時(東) 歌謠稽古
◇同六時二五分(城) 農山、漁村
◇同七時三〇分(大) 歌曲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傷兵慰問
◇同九時(東) 名曲

二十日(日曜)

◇午前一〇時 愛國機命名式實況(國語)—汝矣島京城飛行場으로부터中繼—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보렴이야 二、도라지打鈴 三、긴아리랑(細笛獨奏) 四、방아打鈴 五、梁山道 六、興打鈴(奚笒獨奏) 細笛 李炳祐 冠簫 崔壽成 奚笒 金準榮
◇同一時一〇分 唱劇調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톡기打鈴 金澗洙 鼓手 丁元燮
◇同一時四〇分 管絃樂(레코ー드)
◇同六時 兒童劇『어머님의은혜』 旺新童友會 指揮 金泰晳
◇同六時二五 童話講話 中央高普校長 玄相允
◇同七時三五分 愛國行進曲工夫 『愛國行進曲』內閣情報部撰定 景明合唱團 指揮 朴景嬉
◇同七時五〇分 玄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湖南歌 나、唱劇調 새타령 申快童 杖鼓 韓成俊
◇同八時二五分 野談 『孜孜我耶』 金澤雲
◇同九時 宗敎音樂 一、聖이신主님 W·S베넷作曲 二、主의聖을보내소서 F·J介엣키作曲 三、라켓트(四重唱) 베ー토벤作曲 四、오ー聖園아 파울랜더作曲 五、내눈을떠워주소서 W·O막크파作曲 六、偉大하시다 EK하이서作曲 貞洞敎會聖歌隊 指揮 金仁湜

第一放送

◇午後一時(新京) 伐採實況
◇同一時二〇分(東) 能樂
◇同六時(東) 物語
◇同七時三〇分(東) 日曜演藝
◇同八時(洋) 獨唱
◇同八時二五分(東) 新內
◇同八時五〇分(東) 小說

二十一日(月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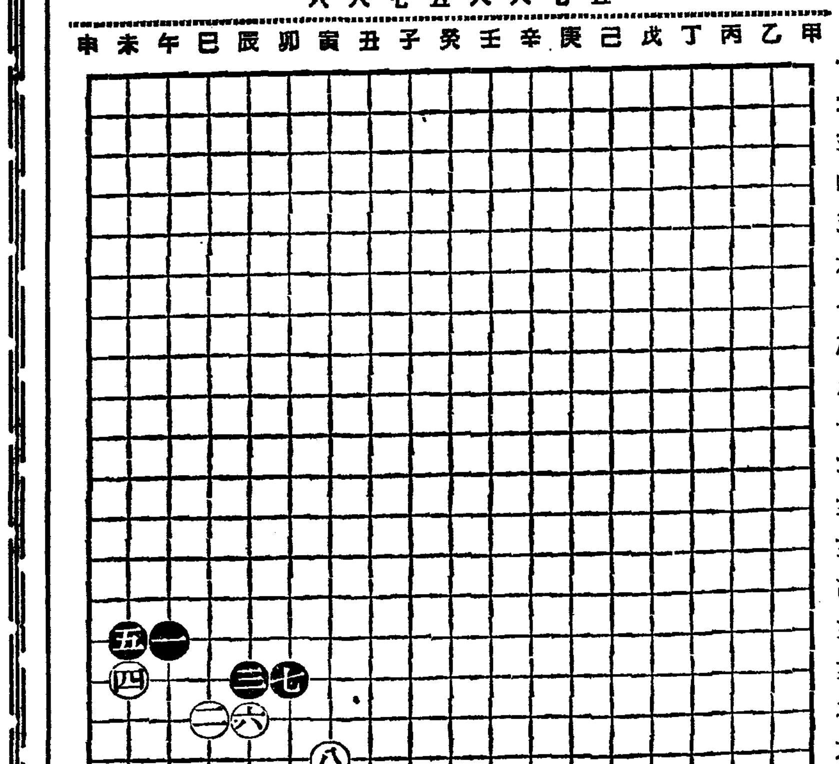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講座 『경단엿』
◇午後〇時五分 吹奏樂 大阪市音樂隊
◇同一時一五分 養牛講演 畜生이야기 城大 盧容昊
鄕謠 레코ー드音樂
◇同六時 童話『善男이의成功』 金季仁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李晶燮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生活의裏面』 任〓
◇同八時一〇分 愛國行進曲工夫 愛國行進曲 內閣情報部撰定 景明合唱團 指揮 朴景嬉
◇同八時二五分 라디오小說『黑風』—安夕影作 金鮮英
◇同八時五〇分 俗謠 一、달거리 二、博物歌 三、將棋打鈴 李忠善 崔貞植
◇同九時五分(平) 獨唱 一、나의집 介ー베르트作曲 二、憩迦 〃 三、들어라종달새의노래를 四、겨울밤에서 백나조키ー作曲 五、집시의少年 타이지경作曲 六、歌劇『라、보헴』中 그대의찬손을 푸치니作曲 作奏 李仁範 伴奏 李仁亨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大) 吹奏樂
◇同六時二五分(東) 支那語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城) 二曲
◇同八時一五分(城) 獨唱
◇同八時三〇分(大) 長唄
◇同八時五五分(東) 小說

本社獨占 國手爭霸譜 (1)

白 任佑植
黑 盧史楚



●一 午의十五
○二 巳의十七
●三 辰의十六
○四 未의十六
●五 未의十五
○六 辰의十七
●七 卯의十六
○八 寅의十八

初陣의配置에서 一擧三反의陣法

三玄子

『前回에서도 말하엿거니와 나는 棋道의 素人입니다 더구나 棋評이란 일즉 해본일이업는데 國手들의 陣法을 엿지로 一回를 마첫다 그리고 『自過不知』라는 말도잇서 스스로는 過誤를 깨닷지못하나 아마도 적지아니한 過誤가 잇섯슬줄로 생각한다 여러大方家는 叱正해주기를바란다 그러케 素人으로서 國手들의陣法을 評하는 方法이 너무지 내친길이 엇지아니한데 그것은 나의性格關係도잇거니와 특히同好者의興味를發揮키爲한 일이니 어불諒解해주심을 바라다그리고 初學者를 爲하야 棋道의要諦를 一言하겟다 무릇 布石하는 方法에는 作戶와 作戰의 두가지가잇는데 어느것에 置重함이 可하냐하면 兵法에 『兵不血刃』이라는 말도 엿거니와 作戰을잘하는 것보다 作戶를 잘하는것이 棋道의 上乘이다 그리하야 高手의 陣法은 戰局을 맨드라서 勝利를 企圖치아니함은 아니로되 知彼知己하야 戰局關係로 特別한 利를보거나 損害當하는 일이 업는데 그러나 그까닭에 正常關係의 布石에는 幾許의變性或은缺陷을 免치못함으로써이다 勿論 布石의 理法을 闡明하면 作戶와 作戰에 區別을지울수 업지만은 時時 初陣布石에잇서서 基點定石을 先占하는것과 또 그 밧게大局에 布陣함을 定石으로삼는것은 相戰을爲한것보다 더만이 作戶의地盤을 짓기爲한것이다 그리고 初陣에잇서서의 定石問題는 棋道의關鍵으로서 極히重要한것이오 또 어려운것이니 從來 朝鮮式棋法에 初陣各八點을 同一한基點에 先着함을 規定한것은 一面으로는 初陣布石의重大한要訣을 指示하고 또一面으로는 이어려운布石으로말미암은 苦痛을 避하기 爲한것이아니가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朝鮮國手들은 初陣布石에는 注意가缺如하야 作勢와 作戰에 置重케되엿고 따라서作戰에는 能하나 作戶에는 能치못하며 더구나 初陣布石에잇서서의 基點및大場을爭奪하는 陣法과가튼것은 이제오히려素人의水準에서 超出치못하얏다고하야도 過言이 아니겟슴니다』

初陣各四點의配置는 極히重大한布石으로서 이를 어느一隅에集中치안코 四隅基點및四邊中央에 布陣하는것이 一般定石인대 이제黑白八點이 右邊下隅에集中되여 一隅로써 三隅를 反코자하는 陣勢를 짓고잇스니 어젓은 國手들의一隅反三할 自信이잇는 일이겟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四隅에 分布되지아니한關係로 初陣布石의 一般定石에對한 國手들의手法을 拜觀치못하게된 것은遺憾이다 그리고 黑一이 午의一五에 目外基點을 取한 것은 一種의疑問이오 또白二 巳의一七은 目外基點의地盤을 破壞하는 一般定石이다 그러므로 黑三은 辰의一六으로小斜走하야 邊隅의地盤을바리고 中原으로發展하얏다 白四未의 一六은 먼저辰의一七로直走하는것이 通常定石이어니와 만일黑五未의一五가 辰의一七로 白의上邊進出을 遮斷한다하면 白은右邊末의一五인 第二線의 淺邊으로밧게나올수업서서 그上隅에闘陣치아니치못한다 白六辰의一七 黑七卯의一六 白八寅의一八은 모두이陣形에서는 缺變할수업는 關係인데 이陣形의論評은 次回로미루겟다

流行歌의淨化 流行歌懸賞募集

現代의 文化領域에잇서서 그廣汎한 大衆性으로보아 流行歌는 거의 時代의寵兒인 느낌이잇스나 不幸히도 어때까지의 流行歌는 그詞와 調가 함께 頹廢低俗한것이엿슴으로 一般識者의 慨嘆한바이엿는데 本社에서는 이러한 風潮를 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의 出現을 促進하기위해서 이제 滿天下同好者들에게 淸新潑剌한 새流行歌를懸賞으로 募集해서 널리 廣布하려는바 이뜻에 同意하는분이만히 應募하기바란다

懸賞金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三十圓
三等 三人 二十圓
佳作 五人 各薄謝進呈
(但賞金以外込 後版權은本社所有에屬함)

應募規定 一人 三篇以內
應募期限 二月二十五日까지
審査方法 本社學藝部擔任
(注意)—投稿는 本社學藝部로하는데 封皮에 懸賞流行歌라 朱書하되 落選原稿는 一切返還치아니함

朝鮮日報社學藝部

中篇小說 女人命令 【49】

李善熙 作
崔根培 畵

結婚(一)

숙채는 다시 전에잇든 하숙으로 옮아왓다. 한번나왓든데를 다시들어가는것보다 훅 다른데 가보는것이 어떠가도 생각햇스나 역시 잇든집이 조와섯다.

숙채가 그이튿날 저녁때쯤집을 다시떠싯고 주인집에 이르럿슬때 편영감쟁이는 궁둥이를 하늘로 치여들고 아궁지속을 디려다보며 불을핀다.

『아 이거 아씨 웬일이십니까』

『또 댁의 밥좀 먹으라구요』

영감쟁이는 전에나 다름업시 서란 세멍어리 장작이 몃개괴식 이를 배름지며 부억아베ㅡ로 노하다.

숙채가 방에들어가 대충 짐을 풀러 제자리에 노흘것은 노코 그집딸속에 처박어둘것은 마루로 주어내는데 심부름꾼아이 춘식이라는녀석이 어디가저 헐적거리며 드러온다.

『너 잘잇섯니?』

『아방손님 웬노루오섯군요?』

춘식이는 숙채를 보자 먼저 어손넘어 갈때 주고가든 책상과 『혼다테』생각이 난다 그것은 그날로 벌서 어느 고물상에들고가서 팔십전에 팔어먹엇든데 이제도로왓스니 그걸 도루내라 지나안흘까해서 가슴이 덜컥내려앉엇다.

그러나 숙채모양을보니 전보다 써『하이칼라』가 됏다. 지금은 그런 너절한 책상이나 『혼다테』는 쓸것갓지가·안타 이것은 춘식이녀석의 주제넘은 지레스짐작이나 어쨋든 그러케 생각키여지는것이다.

그도 춘식이녀석을 함부로업수히만 녀길것이아니다. 그녀석이 벌서 나이가 열다섯살이나되고 더구나 사람 손대에 걸이든 아히라 그런눈을 뻐이는데는 웬만한 어른 찜쩌먹겟스니 더말으해서 무엇하랴.

사실 숙채는 전보다 더찰입은것도아니다 더잘꾸민것도아니다 그러나 안나의집에 다섯달동안머므는사이 어딘지 모르게 숙채의 몸과 얼굴과 머리속에까지 『안나의생활』을 다소간 무처가지고왓든것이다.

이것을 맨처음으로 봐낸것은 물론 춘식이그녀석이다.

숙채는 걸레를 뺑어달라고해서 방안을 두세번 훔첫다 그리고 종이한장 빗두루 노치안코 적다 정돈해노흔후 그는할일이업는듯 걸레를 한쪽손에쥔채 머니 방한가운데서 잇섯다 그리다가 문득 자기손에 쥐여진걸레를 보고 그것을 다시 안바마루우에 집어던졋다 아래목에두다리를 뻿고안저보앗다 방안엔 약간의 자기세간과 그리고 베벽이 마조칠뿐이다.

이러할때 생각은 의례히 마음에 사람을 불러내는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유원이 안나 숙채는 가장최근의 안나의 가엽슨 장례(葬禮)를생각하다가생각은도 유원의게로 다라낫다.

『지금은 멀하노』

숙채는 그저 이심점고 밋도 끗도업는 한마듸가 마음속에서 지꺼려질뿐그다음엔한참식각각해진다 진실로 『유원』이에대한 생각은 숙채의 머리속에서 어제만 성이되여버렷다.

숙채는이제는 한가지 슬픔을 오래계속할수가업섯다 마치 어린애가 울다가도 무슨우슨거리가지나가면 곳 그구경에 팔려버리드시 숙채는 한가지의 슬픈 생각을 하면서도 하찬은새로운 곳을곳 가기는 숙채가 너무점어서 그의 선경이 늙은이의것 파가티 질기고 구더버리지 못한까닭이엿다.

숙채는 지금 이런거리를 종일 차단니대야 하나의 친한사람도 차질수업슬게다.

이러케 견딜수업는 고독의숙채에게 생각만이아니고 손으로능히 붓들수잇는 사람—무슨말벗이 필요햇다.

어때 엽집에서 공원듯 두결내는다미소리에 섯겨 각의사의 청량한 음성이 밧게서 들렷다.

숙채는 눈이 둥글해서 문아페가 섯스나 이여 문을 열지못햇다.

家庭医学

戰時의姙婦衛生

姙娠率이低下하고 早産、流産키쉬운

惡阻、浮腫、腎臟炎의加療

日本은支那事變의聖戰에 括目할만한 戰果를 내고잇사오대 歐洲大戰時의 獨佛英伊諸國의例를 들것가트면 戰時는 戰死로 因한 靑壯年의 激減으로國內의 出産率이 低下함을보이고잇습니다

戰爭으로因하야 配偶者를잃어바리는 以外에도 婦人은極度의 精神의 緊張을 繼續하고 或은 激甚한 感動을하던지하면 姙娠率이低下하고 비록 姙娠을해도早産이나流産을하기쉬웁니다—醫者

內閣統計局發表의

十一年度內地人口動態表를보면 前年보다自然增加에잇서서 十五萬人의 激減을보이고서 一部識者를 憂慮케하는때임으로 戰時日本의 姙婦는 이때에身體를조섭하하야 튼튼한애기를 나시기바랍니다 때가때인만치 婦人들이먼저注意하여야될것은 感氣에 걸리지안토록하여야될것입니다

—特히姙娠의後半期 그中에도 臨月이되야 感氣에 걸리면 高熱로因해서 胎兒가 죽게되던지 早産又는流産하는일이 각금잇습니다

그에注意를하여도 姙娠中에는惡阻 腎臟炎 姙娠脚氣浮腫等으로苦生하기쉽습니다

惡阻가重하게되

면 榮養이衰하야 腦까지 胃害되야 結局은 生命을빼앗기게되는例도잇습니다

惡阻는胎兒와胎盤에서생기는毒素때문에 이러나는것이라고해서지마는 最近비타민B가 이에密接한關係를가지고잇는것이 證明되엿습니다 비타민B는一般으로脚氣에對한 効果만알려저잇지마는 이것에는 胃腸强壯、發育促進等의作用도잇고 도한解毒及新陳代謝를旺盛케하는作用도잇서서 어것이

胃腸과卵巢等에

活働하야惡阻를鎭定하는데効果가잇습니다—또 인슈링을注射하면有效하지마는 이인슈링의一種...

尿에蛋白이나타나는

사람은 于先에 腎臟炎이라해서 걱정이 全身浮腫을 이르키고 母子共히生命을 빼앗기는두려운病을 惹起하는수가 잇습니다

그러대 前記의 惡阻에 效果가잇는 『錠劑わかもと』는 胃腸과 腎臟을 튼튼히해서便通 利尿를 整頓하고 新陳代謝를旺盛케하는 故로 自然이 浮腫도업서집니다 特히 脚氣에는 비타민B가豐富히補充될으로 더욱 잘낫습니다

게다가 『錠劑わかもと』에는 그外에도비타민AB와 칼슘等貴重한 榮養素를含有해잇서서 이러한것은 母體는勿論、胎兒에도好影響을끼치며 感冒等에도걸리지안는體質이되는故로姙娠中의婦人에는 常用하시도록推奬하고시픈良藥입니다

乳幼兒 發育促進의榮養素

人工榮養兒를튼튼히기르는法

乳兒는 抵抗力이弱하기때문에 어른이조금 滯한程度엣것도全身의 榮養이 侵害되야 死亡하기 쉬운대 이것은 人工榮養의乳兒에 特히만흐며 그率은 母乳榮養兒의 四、五割에 達합니다

그原因은 主로 哺乳料인 牛乳와 粉乳가母乳에比해서 乳兒에適合지안흔까닭으로서 人乳가 一時間乃至二時間으로

消化

되는대 牛乳는二時間乃至三時間걸립니다 그러므로 조곰만만히먹어도 消化不良을 여르키고 不消化便과 粘液便、綠便等을 몹니다 消化不良을防止함에는 牛乳에물을 너어서 蛋白水를 少量으로하고 砂糖을너어서 含水炭素의不足을 補充하는等 牛乳에물을타처서 母乳에近似하도록하는것도조흐나 그外에 비타민B를 補給하는것도 이저서는안됩니다 비타민B는 發育促進비타민이라고까지해서 乳兒에는 第一貴重한 榮養素입니다 牛乳、粉乳、煉乳等에는 어느것에나비타민B가 不足한까닭에 母乳兒와가티 順調로운

發育

이안되고 胃腸도弱해지고 乳兒脚氣와 腸自家中毒을 惹起하던지합니다 그러므로 비타민B는 期於코補給하지안흐면안되는대 그러케함에는 『錠劑わかもと』를 먹어는것이 適當합니다 어것은 부스러트려서 밀크와 重湯等의哺育料中에 每回添加해도 關係치안습니다

『錠劑わかもと』에는 비타민B가 多量으로 含有해잇는外에胃腸의 組織細胞에 活力을주고그機能을 調整하는 活性酵素와또乳幼兒와 病人의弱한 胃腸에도容易히 消化吸收되는칼슘、구리고ー겡、鐵、아미노酸其他多種의榮養素가 含有해잇슴으로 이것을哺育料에添加해서먹이면

綠便

粘便等이 正常便으로 恢復되고 發育이旺盛히되야 貧血이되지안코母乳兒에 지지안케 튼튼히 기를수가잇습니다

또乳兒의것을 먹어는産婦들이 이것을 服用하면 乳汁의分泌이 豐富히되고 또비타민B가 豐富한 良質의 乳汁이나와서 乳兒脚氣도 防止되므로 授乳中의어머니들도무엇보다도 實用됩니다

『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際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 千錠入의二種目이 一日分겨우 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廉價로發賣됩니다

粉乳로 튼튼히기른經驗

(鹿兒島) 吉田敏

나는三年前에長女를 死亡시키고長女代로親族집男兒를나흔지 잇흘만에데려다가 기두기에힘을썻습니다 그러대內子의게젓이업슴으로×××을 母乳의代用으로키웟습니다 그러대애기는살이어찌고 氣도업서보이고 便도便通이업고 泄瀉도하고 漸漸여위여만 가서걱정햇습니다 그때新聞廣告에 어러한애기들에 『錠劑わかもと』가大端히조타고햇슴으로이것을사다가食後에두個式 부시려드려서 먹엿습니다 約三四十日後每日繼續해서 먹엿드니바顔色도조아지고便通도整調되고날로元氣가나고살이쩌옴니다 나는大端히기뻐서 어쩌엿습니다(中略)지금은 예원아기들의發育에도 대단히살이쩌서病도한번안코 大端히健全합니다 『錠劑わかもと』에 感謝하고잇습니다(後略)

んちゃっかのカブト

담결니는곳에 아마ー푸라스타ー

『마마ー푸라스타ー』는 아픈곳과 결니는곳에 붙이시면 좋은 기분이들면서 곧 고통이개이고 약기운은 오래가서 병근원에작용하야 근본적으로 낫습니다

그것은 본제만이 가지고잇는 特有의효력이니 즉 피부를통하야 皮下근육과 혈관에침투되어서 細胞組織을更新식혀주고 피의循環을 旺盛케만드는故로 그렇게 심하든고통이 끝게이게되는것입니다

本劑는 皮膚面에 잘 붙어잇는고로 약효가 二十四時間이나 持續的으로發揮하고잇는까닭에 약효는 틈님없이氣孔으로부터 늘 작용하야 심신을爽快케하여주며 어느곳에 붙이시고도 자유로 動作을하실수잇습니다

本劑의사용법은 약제의表面에 붙어잇는 엷은「가ー제」를 떼어 그대로나 혹은적당히 짤나서 아픈곳에 붙이시면 되오며 宅근처藥房에서나 혹은 직접本舖로請求하시는대로 試用藥을거저드립니다

약가 八枚入 二十錢 十三枚入 三十錢 二十二枚入 五十錢 四十八枚入 一圓

全道有名한藥房에서販賣하고잇습니다

신경통 견비통 근육통 肺인꼿 류ー마지스 관절통 치통 乳腺炎에 특효함

大木耳鼻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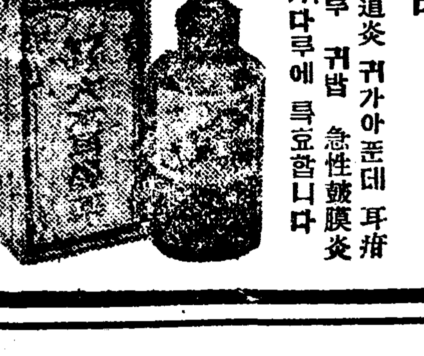
목이비약

위험한 耳鼻疾患을 근치식혀야될 여러분! 조선은大陸性기후관계로 특히귀병과코병의환자가만흐니 주저마시고 大木(오ー기)耳鼻藥으로 치료하시면 가정에서도 간단히근치되어버립니다

치운 요새에는 귀병과 코병이 몹시 중하게되는시절이오니 하로바삐 위험한중환이되시기전에 獨逸의醫藥大家『포리츠 케르ー』博士가處方하신본제로 근치식혀주시기바랍니다

本劑는 귀젓 耳道炎 귀가아픈데 耳痛 耳內濕疹 耳가다루 귀밥 急性鼓膜炎 蓄膿症 鼻漏 鼻가다루에 특효합니다

廿錢 卅錢 卒錢 一圓



東京·大阪 大木合名會社

中部版

遠海漁業의根據地 德積島를漁港으로

新年度의京畿道豫算에約二萬圓을計上코 道會를거처四月부터修築着工

경기도연안 원해어업(遠海漁業)의 중요근거지인 덕적도(德積島)는 인천에서 이십팔해리(約百廿五里)나되는 황해에잇는 경기도내에서 강화도(江華島)에다 음가는 큰섬이며 행정구역으로는 부천군 덕적면(富川郡德積面)으로 호수 팔백오십호, 인구 오천여에달하고잇다

그리고 이섬중심으로 근해에는 조긔 민어를비롯하야 해산물이 풍부하야 인천부근의어업자는물론 멀리 일본내지어업자까지 진출하야 만흘때에는 어선에 다리 매이는어선이 삼백여척에 달하는 성황임에 불구하고 어떼까지 어항으로서의설비가업서 도민은 물론일반어업자로부터 경기도당국에 진정도 한두번이아니엿섯다

도당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완전한 어항을 만드는데는적어도 이십만원이라는 거액이필요한데 비상시예산에서 일시에 이십만원을 지출할수는 업다고하야 십삼년도에 비로소 신규사업으로 덕적도어항 개축비로 이만원을 계상하얏는데 이것은전혀피난 설비방파제(避難設備防波堤)를만드는데 소용될것으로 오는예산도회의통과를 기다려 사월부터 공사에착수하기로되엿다

계속사업으로라도 예산의 편성을보지못한것은 유감이나 이번완전한어항축조를위하야 몃개년의 공사의 완성만으로도 도민년래의 숙망의일부를 채우는것으로 공사착수는 기대는바매우크다

仁川木船商組合 役員改選再出發

[仁川] 인천목선상조합은 작년가을이래 동조합장 리정규(李貞珪)씨사임에의하여 경원그대로잇기때문에 조합사무에 다대한 지장이잇서기에 지난십칠일에동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이하 각역원개선과 제반사업의 대책을토의결과하고 그임원은다선하여 비상시하에 더욱적극적 선입인천목선상거에 재출발하기로하야 동조합의원의 『결의』는다음과갓다

▲組合長 朴南七 ▲副組合長 金成俊 ▲評議長 金廣明 朴來京 尹殷台 鄭行模 沈相達 洪架裕 文啟故 李潤宰 ▲書記 金鎭成

郡部卅三個團體의 青年體格을調査

廿日부터京畿道에서

전시체제아래에서 물적자원(物的資源)과아울러 중요한것으로인적자원(人的資源)이며 그기초가되는것은 체위(體位)이다 일본내지에서는 이러한견지에서 국민의 체위향상을 목적하는 후생성(厚生省)의 창설까지 보앗거니와 총독부에서도 파거에비교 전등한시되여온 이방면에 적극적 진출을하고저 간도에명하야 청년의 체격조사를 하기로되엿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청년체격현세조사(青年體格現勢調査)를오는 이십일경부터 각부군일제히 시작하기로 되엿는데 이번에는 른세단체에 일천구백이십명을검사하기로 되엿는데 경기도에서 주로공의나 학교의가잇는 곳의 청년단원 십오세로부터 이십세까지만을 조사하므로 그수는서한바게 몰볼교와 힘으로조사하는동시에 도회지와 산간지대, 평지대등의 지구적환경(地區的環境)과 청년체우에 주는영향까지 상세히조사하기로 되엿스므로 그결과는 흥미와주목을끄으는바이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는 단체명과 인원수는다음과갓다

青年體格現勢調査資料

京城府 京城府聯合青年團 一○○ 仁川 仁川府聯合青年團 五○ 開城 京町青年團外十三個青年團 六四 高陽 纛島青年團 三○ 高陽 廣安青年團 一五 三七 楊州 楊州青年團 一五 楊州 州內青年團 三七 漣川 漣川青年團 五八 抱川 抱川青年團 一六○ 加平 郡內青年團 七○ 楊平 萬山青年團 八 二五○ 驪州 驪州青年團 八○ 驪州 金沙 青年團 四○ 利川 利川青年團 一五 利川 浦青年團 三○ 龍仁 水餘青年團 四五 安城 安城青年團 三五 安城 竹山青年團 三○ 振威 平澤青年團 四二 水原 水原青年團 七四 水原 城湖青年團 一七 水原 南陽青年團 二八 水原 鄕南 青年團 二四 富川 永宗青年團 二○ 金浦 金浦青年團 一七○ 江華 江華青年團 一二○ 江華 青蘭青年團 五○ 坡州 臨津青年團 一八 長湍 津南青年團 八○ 長湍 郡內 青年團 一六 長湍 江上青年團 一五 開豐 豐德青年團 七○

計 一、九二○

仁川에盜難頻繁

[仁川] 인천부내에는 금년들어 도난건수가 벌전느런스러운이인천서내산(內山)사범주임이 제일선에나서서 도난방지에 일대활약을하여오는중인데 부내각고물상에서는 물품을사들때 도난품인줄알면서 사는경향이만흠으로 인천서에서는 여기에각고물상을소집하여 주의를시킬려이라는바금후에도 위반하는경우에는 엄중처벌하리라고한다

山林盜伐者續出

[仁川]치수사방의 필요상 수년래 전조선에 록화(綠化)운동을 하여와는데 인천부에서도 각방면에 대하야 식림(植林)을 장려하는일방 벌채취체때에 동부속 경기도 삼림수사가 순회하여잇섯는데 엄동기에잇서서는 연료부족으로 도벌이 속출한다는바 요사이와서는 도벌자수가 더느러가므로 일층 엄중취체하리라한다

舊正맞자풍성해진 婦女子의致誠熱

開城에迷信行爲盛行

[開城] 고려조 오백년의 구도 개성은 한때 불교사상의 전성시대를 연출했든 고장인만큼이 전통적 종교사상은 그중의사무상의 잡신을 섬기는 미신을나게되여 오년전만해도 혹세무민을 일삼든 무당(巫女)판수등이 백주에요귀가튼 도깨비놀음을하고 공공연히 금품을 편취하는 일이허다햇거니와 최근엔 이것을 경찰당국에서 엄금하므로표면으론 그영자를 감추엇다고보겟스나 아직도 뿌리깁흔에저준 일반가정부녀자들은 자기네의길흉화복(吉凶禍福)을전치보고 운수가나쁘면신에게 빌고하는습관을 버리지못한다 이러한사상이 가장로골화하게 발휘되는 때는 구정초인바 송악산(松岳山)『德物山』등으로 지성(致誠)을드리라고가는이 『만수』『무당』네집에『만수매기』를 하라고가는이 『남대문』으로 고사를드리라고오는 장사꾼의 안해등으로 정초에는 전에 볼수업는 성황을 보여거니와 이보다도 대성황을일우는것은 관왕묘(關王廟)인데 일년신수(身數)를보는데는『관왕전』의 이제일유명하다고하야 정초이후로 점서(占筮)를치라고 드리미는손님은 매일이산인해를일우워 해마다 이곳은 정월이면 돈버리를맛게되는데 금년도 근만명이상의부녀자가 정초부터 계생에서 미신행위로 소비하는돈도 한정월에수만원에 달한다는것을 능히짐작할수잇다한다

海州港繫船場 至急完備要望

[仁川] 항도인천에서 각지로항로용호를 발동선으로 수송하는곳에있어 인천해주(海州)간정기항로는 인천각기선회사에서 매월이십여회를 왕래하는데 약진도상의해주항에는 아직항만(港灣)의시설이 완전치못하여 발동선 게선장(繫船場)이 불비한은하다는데 인천선어(鮮魚)자출에서는 다대한타격을 바드므로각기선회사에서는 인천상공회의소에의뢰하여 해주(海州)항게선장개량을 요망함의견이라는데 언천해주간에 물자운송이 빈번한만큼 게선장설비를 시급하게 랄하기바란다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51】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 (十九)

『나는 한동 그리백정의 손자구 양주 쇠백정의 아들일세 사십평생에 몇지두 만이밧구 천대두 만이바덧네 만일 나를 불학무식하다구 멸시한다치면 멸시천대를 안밧게되겟지만 백정의 자식이라구 멸시천대하는건 죽어 몰으기전 안바들수 업을것인데 어것이 자식적지하는 삼신할머니의잘못이거나 그러치안으면 가문듣지 상인해몹한다구 천대한다면 글공부아한것이 내잘못이구 의허할 한것이 내잘못이니까 이왕 바르게버더 실배백배 더밧드래두 누굴 한가하겟나 그대신 내잘못한 고하려하는 세상사람의 잘못이니까 내가 삼신할머니를 탓하구 세상사람을 미워하게 세상사람이 인배이 다 나버며 잘잇다면 나를 멸시천대하드래두 당연하일루 여기구 왕지에 그러치만 내가 사실부자에 인해들로 저다보이는 사람은 며놀친것네 내수들덥어노후 쌀하면 세상사람이 모두 내눈에 팔보이는데 팔보어는 사람에게 멸시천대를바드니 어째 분하지안켓나 내가 도둑놈이 되구시퍼 된것은아니지만 도둑놈된것을 조금두 뉘치지안네 세상사람에게 판문의일이라두 분풀이를 할수잇구 또 세상사람이 벌벌떨게 내세상이 따로잇네 도둑놈이라니 말이지만 참말 도둑놈들은 나라에서 녹을먹어 길러네 사모를 도둑놈이 시골가면 꿀들이 다잇구 서울오면 조정에 독실목실 만이잇네 윤원형이니 리랑이니 모두 흉악한 날도둑놈이지무엇가 봉우(朋友)가튼 까까중이까지 사모쓴도둑놈들에 끼어서 착실이 한목을보니 장판이지 이런말을 다하자면 한이업스니까 고만두겟네 자네가 지금 내 본색을 안바에는 인제 고만 자네하구 작별인데 이세상에서 다시 만날지 몰으는 마주막 작별에 말이지 일어서기가 섭섭해서 내속에잇는말을 대강헷네 그러구 내증적을 자네가 헌사할리는 만무하지만 혹시 한두사람에게라두 말한것이 들어나면 오입쟁이 림선달대신 도둑놈의괴수 림꺽정이가 자네를 보러올른지 몰으니 그리알구 조심하게』

꺽정이가 말을 전잔케하느라고 생각해가며 말하야 말된말 상스러운말을 한마듸도 아니석고 긴말을 다한뒤에 슬며시 일어나서 의관을 다시차리엇다

『나는 가네』

꺽정이가 소홍이를 굽어보며 말할때 이때까지 그린듯이 안저잇든 소홍이가 별안간 꺽정이의 옷자락을 부잡앗다

『왜 붓드나 할말이 잇나』

『네』

『무슨말인가』

『나하구 가치가세요』

『어디를 가치간』

『어딘든지 선다님 가시는데나도 가겟세요』

『내사정이 자네하구 가치갈수업는걸』

『그럼 나를 죽이고 가세요』

『내가 아무리 사람잡숙이는도둑놈이라두 죄업는기집은 죽어지안네』

『선다님이 죽인다면 나는 못고 죽겟세요』

『내가 사람죽이기에 이골이낫서두 옷구 죽는사람은 손어떨려 못죽이겟네』

『나를 내버리고는 못가실테니 나는 몰라요』

『자네가나를 따러가면 막이 도둑놈의 첩노릇을하게될테니 자네 전정을 망치지안나』

『도둑미 노롯이라도 하겟세요』

꺽정이가 한참 우두머니 서잇다가 펄석 소홍이아페 주저안저서 두손을 잡고 얼굴을 드려다보며

『자네 정을 내가 저버리지안홈세』

하고 말하얏다

이날밤에 꺽정이가 소홍이집에서 자는데 두사람이 다가려정에 겨워서 잠이 오지아니하야 건밤을 새웟다 이튼날 식전 일어나기전 버개우에서 꺽정이가 소홍이더러

『나는 오늘 시굴 가겟네』

하고 말하니 소홍이가 대번에

『나는 엇더케하구요』

하고 물엇다

『어수선한일을 다소간 정돈해노구 자네를 데려감세』

『이애기할께 만흐니 며칠 더 기시다 가서요』

『급한 볼일이 잇서』

『무슨 볼일이예요』

『그건 못지할게 자 고만 열어나세』

꺽정이가 소홍이집에서 자리 조반 먹고 바로 남소문안으로 와서 한온이 보고 윤지숙이에게 분홍히햇것을 대강 이야기하고 박씨 원씨 김씨 세집으로 돌아다니며 급한일이 생겨서 시골을 간다고 말하고 서울서 떠나서 길에서 하룻밤자고 그이튼날 청석골로 돌아왓다

少年*三月號

入學戰線突破號

한번볼만한少年三月號

★대번入學되는法 沈亨弼
★어느學校로갈까 鄭義澤
★入學철의몸조심 鄭潤鎔
★全朝鮮中等學校入學案內
★獨學의길 申瑩澈

三月號主要內容
☆新春漫報·봄서울맞서울 ☆特別畫報·엣날電車시방電車 ☆童話·장사의머리털(趙鼎彬) ☆音樂讀本·戰爭의曲(洪蘭坡) ☆學校小說·부끄럼(宋昌一) ☆幼年小說·군밤장수(丁漢哲) ☆連載漫畫·막동이와간난이(金湘旭) ☆最後의五分間(여러분) ☆探偵小說·白假面(金來成) ☆그림俗謠集 ☆笑話 ☆少年小說·선머슴(武勇傳)(史又春)
이밖게도 수두룩

단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오케-레코-드 流行歌 12091
독수공방
李蘭影

百日咳에 小兒用
코데스
東京 大阪 笹岡

淋疾 排菌早期療法
阿部藥房 ゴノラミシ製藥所

森永 詰合 ビスケットドー
모리나가 비스켓도

東洋一品質 宮內省御用達

大端히 經濟的이오 滋養이豐富하고 衛生的이라는點에서 發育期에잇는 애기네들에게는업서서는 아니될 必須品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愛用하여주시기 仰望하나이다
粗惡類似品이잇사오니 반드시 森永品이라 指定하여주십시요

製造元 森永製菓株式會社 發賣元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旋盤、ボールバン
電氣ドリール
グラインダー
鐵工用工具一式
鐵管繼手
バルブ、コツク、パツキング
ボルトナツト糸捻
自動車工業材料
カタログ進呈ス御申込ヲ乞フ

京城府北米倉町四十二番地
原田商店
電話本局長(2) 一三九五 二四三五
振替口座京城一六八四番

海州支局 電話九六番

眼科
院長 金廣業
大明医院
平壤竹典里(和信東隣) 電話一三八五番

大阪總販賣所
營業所를左記住所로移轉함
大阪市旭區浦生町二丁目九五

●工夫中 ノーシン●

美活石鹸
이활비누

株式会社 吉田久四郎商店

ワシミルク
수리표

유 002645

育兒에게最良
保健에最適

健康
發育의秘鍵

母親의乳量이無한어린아기를 健康하게 養育한다는것은 實로 容易한것이아니올시다『수리표』밀크는 어러한 어린아기들을爲하야 健康의 문을열며 發育에 指導하는 鍵이라고할것이올시다。牛乳及其他 營養分만으로 營養困難한 弱한 어린아기라도『수리표』밀크를 먹이면 完全히 기를수잇습니다『수리표』밀크는 모든煉乳의 元祖이며 七十年이라는 긴歷史를 가지고잇습니다 其의 效力에對하야서는 世界 어느곳의 애기어머니든지 잘 認識하는바이올시다 어린아기에게는반드시『수리표』밀크을使用하야주십시오『수리표』밀크는 牛乳보다 消化가잘됩니다 그러고 一般滋養分으로 말하야도 牛乳보다 安全합니다

(藥店食料品店에서販賣)

K2-38

合服豫約開始

ス・フ混用令實施！純毛製服は騰る、無くなる!! 誂へるなら今です、何卒お早く!!!

二月二十日より三月二十日まで 特價大提供

春の新柄ネクタイ賣出し
フレスコ、京美織、博多織等 流行ネクタイ豐富入荷
一圓五十錢位より二圓八十錢まで

セビロ三揃	
特	63.00
A	58.00
B	53.00
C	48.00
合オーバ	
特	58.00
A	53.00
B	48.00
C	43.00
實用服三揃	均一 32.00

丁子屋

經濟朝鮮說

戰時財政과 公債 ②

그러나 이 昭和十二年 公債發行豫定額은 事變後 軍事豫算關係와 各會計에 있어서 節約을 斷行하고 一方軍事費公債가 廿四億圓이 增加하엿스므로 以上의 比較는 너무 意味가 없고 軍事費가 全部로 一會計年度外되어 잇스나 大體로 알어보기 爲하야 第七十議會의 分까지를 十二年度分으로하고 보면 昭和十二年度의 公債發行豫定額은 約卅二億圓이다 歲出不要額때문에 赤字公債는 多少減少되얏스나 이것은 그대로인것은아니다。

十三年度는 軍事費追加豫算額은 四十八億五千萬圓으로서 그財源은 特別會計로부터의 繰入이 九千三十萬圓 事變稅金의 繰入千萬圓 增稅三億圓이므로 四十四億圓을 事變公債金으로 充當케되엇는데 其他分을 加하면 五十二億六千萬圓 公債를 第一年間에 發行치아니하면 안되게된다。 이것을實際로 發行한便으로보면 昭和十二年度의 公債發行豫定額約三十二億圓中 公募日銀引受額十九億圓이 十二年八月中旬부터 十三年二月十五日까지의 半年間에 發行되여 月平均三億圓이다。 五十餘億圓의 全部가 十三年度中에 發行되는것이 아니고 一部는十四年度에 持越될지도모르지만 軍事費公債의 十二年度에 發行치않은分이 十三年度에 드러 發行되므로 十三年度中은 結局 毎月平均 적어도三億五千萬圓以上의 發行을 必要로한다。 馬場元藏相의 公債十億圓說等은 멀서 出入이 다 어지버리고있다。 其消化를 如何히할가가 問題이다。

어러케되면 오직 金融政策으로 公債消化는 不可能하다。 公債消化、物資의 調達、惡性「인플레」의 防止、此等이 融合하야 한 問題가되어있다。

物資의 調達이 不可能하면 公債消化도 不可能하고 「인플레」의 防止도 不可能하다。 長期戰의 戰費는 金이아니고 物資라고하는 所以는 여기에 있다。 物資란것은 生產力과 輸入力을 이要求하는것이다。 生產力擴大과 不要品、不急品의 輸入制限、消費節約이 이에 對應하는 政策이다。

物資의 調達이 一般物價의 昂騰을 招來하는일이있으면 公債는 消化되지안는다。 어러케되면 反感하는「인플레」에 陷할것이다。

더우어 生產力擴充을 圖謀하는 一方不要不急事業에의資金의 流入을 阻止하고 金과 物의 浪費를 防止키爲하야小額公債、貯蓄債券등여러가지方法을 講究할必要는 잇스나公債消化의 主對象은 아무래도 金融機關이겟다。

(四) 公債、租稅外의 軍事財源

公債와 租稅以外의 軍事費財源은 各特別會計로 부터의 繰入金과 爲替價格引上에 依한 增收이다。 爲替價格引上은 十一年度에 實施한것으로 도計上하얏슴에아니라 新하게 不急品이라고는하지만 日用品인때문에 新稅이조치안타。 그러나 大藏中은 各國이모다 爲替價格引上에 第一먼저 手를대엿고 物品特別稅의 新設도 國民의 增收와 均衡을 保持키爲하야서는 不得已한일이다。

國家財政의 困難에 應한 繰入金의 額은 二事點으로 區別할수가 잇다。

其一은 忠勇한 將兵이 生命을 바치는데 이므로 國民各層을 通하야 負擔力이 許諾하는限 戰費를 負擔시키는同時에 戰時의 經濟統制를 徹底케하야 國民의 生活을 節約에 行할것이라고하야 各家計의 消費를 引下와 小額公債에 實施하는것이고 他는 넘우적은 財源을 租稅에 求할것은 오히려 戰時財政에 對하야 國民에게 不安을주는 一方 外國과 支那에 對하야 經濟力이 弱하다는 印象을주는것이다。 國民精神總動員을 行하고 잇스면서 政府는 이에 協調하기를 바란다는 惡影響이 생기는것이다。

十三年度 一般會計豫算은 千七百餘萬圓에 達한 卅八億大額에 加해지므로 實質的으로는 相當히 만흔 二億餘圓外에 追加豫算이 加해지므로 實質的으로는 確實하다。 追加豫算에 組入된 主要한것은 增稅에 依하는 增收 歲出은 戰後施設及臨時軍事費會計發行의 國債利子의 增加이다。

—(了)—

時局關係重大化로 都市勞働界打擊

資金調整法에 依한 影響深刻

冬期建築界一層不振

冬季不需要期인 都市의 勞働界는 資金調整法에 依하야 建築工事가 一齊中止狀態에 빠젓스므로 더욱 그影響이 커서 昨紙報道와가티 勞賃은 大暴落되엿슬뿐아니라 實際需要가 大激減되어 時局關係가 露骨로 勞働界에 큰 打擊을주고잇는바 날이 따뜻해지드래도 都市의 勞働界는 工事制限으로 需要가만흘것을 豫想할수업고 따라서 高物價時代에 勞賃高도 期키어려운 實情에 잇다한다

農糧資金의 利子補助決定

朝鮮米穀移出統制計畫에 基하야 各道에서는 昭和八年起債에 依한 正租買取資金三百五十四萬二千五百圓(全羅 黃海의 十一年度起債를 含)을 邑面에 融通하야 收穫期에 正租를 買取하고 春窮期에는 食糧또는 種穀의 低利貸付를 行하야 朝鮮米移出의 調節을 計畫하는同時에 窮民救濟에 資하고잇는데 成績이 良好하기때문에 總督府로서는 昭和十二年度에도 이것을 獎勵키爲하야 各道起債利子의 一部(年四分을 超過하는것은 四分 年四分의것은 二分五厘)에 相當하는 額으로서 合計十萬六百九十七圓을 補助키로하엿다 한다

京畿	一〇、〇〇〇圓	忠北	四、二〇〇圓
忠南	一三、八〇〇	全北	一〇、〇〇〇
全南	一三、四四四	慶北	一六、〇〇〇
慶南	八、〇〇〇	黃海	六、〇四三
平北	二、六五〇	江原	二、〇四〇
咸南	四、六〇〇		
計	一〇〇、六九七(平南咸北은없다)		

高周波系로 設立될 金剛特殊鑛會社

金剛山의「탕크스텐」採掘

日本高周波重工業에서는 特殊鋼資源의 不足에 鑑하야 金剛山에 잇는 「탕구스텐」鑛에 着目하고 同鑛山의 鑛業權者와 共同出資(高周波過半數出資)에 依하야 資本金百萬圓의 金剛特殊鑛株式會社(假稱)를 設立케되여 目下 資金調整法의 認可申請中인데 一兩日中에 認可가 잇슬 模樣으로 이것을기다려 곳創立總會를 開하야 創立할豫定이라한다 右會社는 金剛山에 잇는 「탕구스텐」을 月產三千噸 採掘의 豫定인데 社長은 高橋省三氏 專務는 松宮淸氏로 內定되여잇다 또高周波에서는 이것과 同樣으로 「탕구스텐」採掘을 目的으로하는 特殊鑛會社를 目下設立計劃中이라한다

京城과 天津에 自動車工場

國產自動車計畫

國產自動車工業에서는 一千萬圓增資에 依하야 天津及京城에 自動車製造工場設置와 共히 組立工場設置의 工場計畫을 進行하고 엿섯는데 車工業과 合併하는 形式을 取하게되며 本格的인 自動車製造工場建設에 着手케되엿다 計畫의 內容은 目下渡東中인 山下同社專務가 瓦斯電工本社와 折衝中이나 右工場은 約五千萬圓의 巨資를 投하야 一貫作業을 行하는것으로 엿이 工場敷地에 對하야서는 京仁線某地에 約二十五萬坪의 買收를 進行식히고엿다 따라서 自動車工業은 一千萬圓增資에 對하야 다시 大擴張의 機運에 잇는데 右製造工場은 巨額의 固定投資의 關係도잇고 最初는 親會社인 瓦斯電工의 分工場으로서 建設한後 完成되면 自動車工業과 合併하리라 한다

熟練工養成

採用試驗

廿三日에 實施

電氣及機械에 關한 工業第一線에 活躍할 熟練工養成에 進出한 朝鮮工業協會에서는 來三月二十三日 機械科約百五十名 電氣科約五十名의 募集採用試驗을 하리라 한다

買電假調印

高周波와 長津江

日本高周波重工業의 城津工場의 第二期擴張計畫에 要하는 所要電力의 豐富에 對하야서는 從來 長津江水電과의 間에 折衝中이든바 遞信當局의 斡旋에 依하야 契約이 成立되여 十九日午後一時 遞信局에서 假調印을 終了케되엿다 同工場의 買電量은 二萬키로로 現在의 六千키로(其中一千키로는 東拓)로 契約한것을 合하야 二萬六千키로가 된다 그래서 同工場에서는 右增電에 依한 第二期計畫에 着手하고 本年解氷期를 待하야 工場增設에 着手하는데 製造能力은 原鐵 特殊鋼共히 現在의 四倍強이 될 模樣이라한다

小幅晒木綿(난목) 最高價格制

卸小賣價에 設定

【東京】 純綿物에 對한 投機로 過般來 小幅晒木棉의 市勢가 急騰하야 東京、愛知、京都、大阪各織物問屋、同業組合의 손으로 十六日까지 賣止가 行하여젓는데 賣止解除의 十七日以後의 賣買를 公正케하기爲하야 十五、六兩日에 亘하야 商工省은 前記府縣의 關係官及組合代表者를 本省에 招致하야 協議한結果 새로히 小幅晒木棉에 卸賣最高價格制를 設定하고 各同業組合에 小幅白木綿調整委員會를 設置하고 其監督에 當케하얏다 또右卸賣價格에 順應하야 東京의 百貨店及小賣商은 小賣最高協定價格을 決定하고 十七日부터 實行케 되엿스며 大阪、名古屋、京都各地도 各各百貨店及小賣商을 糾合하야 同樣으로 小賣價를 協定할 模樣이라한다

◇卸賣最高價 知多晒(東三) 一圓十錢 以下略

◇小賣最高價格 知多晒(東三) 一圓二十五錢 以下略

朝鮮도 追隨

小幅晒木棉이란것은 朝鮮서는 「난목」이라고하는데 조코나진것이잇다 어린애 기저기도만들고 洒帶도만드는데쓰며 或은衣服의 안감으로서 所用되는데 이것이 都賣小賣價에 最高價格이 設定되엿스므로 朝鮮서도 追隨케될 것이라한다

米國金政策放棄?

「인플레」念慮濃厚를 反映해서

弗貨의 落潮急激!

【紐育十八日發聯】 最近連續的低落을示하든 紐育外國爲替市場에 잇서서의 弗貨는 落勢를 끄치지 안코 歐洲通貨는 法貨를例外로 모두 昂騰 米英크로스와如한것은 五弗三仙四分의 三과 前日에 比하야 八分의 五仙이 騰貴 一九三六年九月以來 高價가되고 一方 法貨도 低落을 示하지 안코 其下落은 完全히 阻止될에 至하고 잇다 右는 去十四日發表된 財務省의 不活動金一部開放政策이 海外에 잇서서 顯著히「인플레」的으로 解釋되여잇는것을 反映하는것으로 當業者의 解釋하는바에 依하면 今番의 新金政策은 理論的으로는 從來의 金不活動化政策의 部分的變更에 지나지 안코 實質的으로는 同政策의 全面的放棄를 意味하는것이다 卽今番의 聲明에 依하면 每三個月中의 金取得額中 一億弗까지는 不活動化치안는다고되엿스나 最近外國으로부터 亞米利加에의 金流入은 顯著히 減少되고 오히려 亞米利加로부터의 流出傾向까지 보여는現狀임으로 이 一億弗이라는 限度를 超過하는것은 當分至難하리라고보지안흐면 아니된다 따라서 流入하는金은 모다 信用膨脹의 基礎로서 作用할수잇는데 其意味에잇서서 적어도 當分間은 亞米利加의 金政策은 全面的으로 放棄되엿다고 解釋하여도 不關하다고 보고잇다

弗二仙四分一이다 十九日入電米英크로스는 五

「不活動資金」

米國財務省은 十一年十二月「不活動資金」(Inactive Fund)라는것을 創設하야 米國으로 들어오는 金을 모다 이 勘定中에 鑼詰하야 그活動力을 封해버린 것이다。 同年十二月廿一日 財務長官모겐도氏가 發表한 政策은 如左하다。

『財務長官은 聯邦準備制度理事會와 協議한結果 公益上必要하다고 認定할 時는 今後 財務省의 金買入에 關하야 適宜한 處置를 할수잇다 卽金買上資金을 國債增發에 依하야 調達하고 또이와反對로 金의 賣却을 要할 事態에는 旣發公債의 償還을 行한다』

從來는 國庫에 納入한金에 對하야 그대신으로서 準備國庫勘定에 對하야 小切手를 交付하고 民間銀行은 이것을 準銀에 預入하야 自動的으로 其準備勘定을 膨脹시키는 結果가되엿섯는데 이것에 依하면 金買上에 要하는 資金은 國債의 市場賣却으로 充當케되여 金證券은 나오지 안케되엿다 이래서 金은 全然 何等의 影響이 업시 不活動金中에 封해진것이다 그러대 이번에 이 不活動金의 一部를 開放한다하야 注目되는것이다

米檢查成績不良

乾燥안된채 貯藏해서

春乾勵行徙慂을 通牒

昭和十二年產米의 檢查實績 最近三個月의 狀況을 보면 各穀物檢查支所 出張所의 指定地에서 行한 第一次檢查에 잇서서 [illegible]混入에 因한 不合格數量은 正租二十二萬叺、玄米十八萬叺、白米一萬九千叺等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正租四·四倍、玄米三·二倍、白米二·九倍의 激增을 보이고잇다 仁川、群山、木浦、釜山、鎭南浦、元山의 六港에서 行한 玄米의 廻着檢查에 잇서서도 不合格數量五千餘叺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五倍餘의 增加를 보인 不成績이다

國有林解放 二者出頭

朝鮮電力과 朝鮮無煙炭

朝鮮產業의 躍進에 伴하는 木材供給難으로 總督府는 長期對策으로서 自家用木材를 必要로하는 確實한 事業家에게 國有林을 解放植林케하야 事業家에게所要木材의 供給을 確保케하는一方木材資源의 充實을 圖謀케되엿는데 本計畫은 森林令第七條에 依하는 朝鮮獨自의 것으로事業家方面에서도 將來의 木材需要에 備키 爲하야서도 好感을갖고잇다 어러한때 朝鮮電力과 朝鮮無煙炭이 率先하야 二者가 一萬五千町步를 申請하야 朝鮮電力이 江原道에 三千町步 新朝鮮無煙이 平南에 七千町步 各各杭木 枕木等의 自給을 爲하야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다 그리고 同法에 基하는 國有不要存林은 三十萬町步로 右各社의 事業의 重要性에 鑑하야 不遠認可를 할模樣이다

北鮮特產歐洲向 運賃率引下折衝

北朝鮮特產의 歐洲向海上運賃은 內地港으로부터의 歐洲向運賃率에 比하야 賦課率이 九志가높은 現狀인데 今回郵船의 歐洲航路가 釜山에 命令寄港케되엿슴을 機會로 어찌高運賃率을 是正하여주기를바란다는 希望을 日本郵船에 交涉中인바 右運賃率의 變更은 歐洲航路同盟의 同意를 要하게되여잇스므로 朝鮮側의 希望과如히 實現될지는 疑問으로 結局折衝한 結果는 內地보다 四志高程度로 引下하야 解決될것으로보인다한다

北支貿易不振

航路開設이나 積荷皆無

對支貿易의 振興은 實踐의 段階에 드러 前提가되는 定期船就航도 旣設航路外에 朝郵의 三角航路도 開設을보앗는데 果然積荷不足의 現實에 逢着하고잇다 朝鮮側의 積出貨物로서는 麥粉 砂糖、新炭類等이 事變以來、特殊方面에 相當히 잇섯스나 其後는 漸減의 形勢에 잇고 一方一般의 取引方面은 아직 本格的으로 開發되지 안흔點과 現地의 朝鮮에 對하는 認識不足도 잇다 荷主에 奔走하고 잇스나 依然코 不振하야 靑島方面으로는 特히 積荷皆無의 狀況이다 勿論犧牲配給의 新航路이지만 事實은 豫想以上으로 深刻한 積荷不足의 模樣이다

中旬對外貿易 入超五百十萬圓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二月中旬對外貿易概算調查는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五八、五四一
輸入	七三、六四三
合計	一三二、一八四
入超	一五、一〇二
一月以降入超累計	四三、八八一

鰮油價格 二圓八十五錢

鰮油二月分不定量入札은 價格暴落때문에 賣買가 不成立되여잇섯는데 其後 油肥聯과 共同油脂間에 二圓八十五錢으로 契約이 成立되여 右價格의 承認을 總督府에 申請하얏는바 十八日付總督府로부터 承認通知를 發하엿스므로 本問題도 解決을 보게되엿다 한다

朝運宅扱實績

一日平均百九十件

二月一日부터 實施한 鐵道局의 宅扱實績은 朝鮮運送京城支店만으로 現在一日平均百九十件인데 京城支店總貨物取扱數量의 二分四五厘에 相當하야 地方의 宅扱을 計算에 너흐면 總貨物數量의 一分五厘에 當하고잇다 그래서 朝運으로서는 一割程度의 比例를 目標에 두고잇는데 內地의 實績은 現在二割二分假量으로 當하고이스므로 거기까지 達하기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것으로 보고잇스나 朝運이 數年間取扱하고잇는 集貨配達에 比하면 七八厘밧게 되지안는것에 成績이조흔便이라한다

鮮銀이 北京에 理事級行員常駐

鮮銀에서는 北支의 新事態에 卽應하야 北京支店의 對中央準銀과의 連絡交涉이 今後 더욱 重大性을 加하므로 그折衝에 當케하기爲하야 理事級의 行員을 北京에 常住시킬 內意下에 目下 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이것은 北支에잇서서의 鮮銀支店關係의 總監督이라고도할 地位에잇스므로 中野正英氏(東京總裁席) 或은 櫻井(本店支配人)等이 有力視되여잇다한다

朝鐵業績良好

朝鮮鐵道에서는 二月末로써 當期決算을 맞움하는데 業態는 運輸收入의 順調에 依하야 好調를 보이고잇다 卽 一月末累計로는 運輸收入累計二百十六萬四千圓으로 前年同期比三十七萬七千圓의 增加이오 一키로當收入도 同樣二十三圓一錢으로 二圓二十錢이 增加하고잇다 八分配當의 豫定이라한다

北支에 三越進出

內地一流百貨店의 北支進出이 注目되는 이때에 三越에서는 北京에 出張所를 設置키로 內定하고 同社常務 能勢高義氏가 十八日 入京하야 十九日「노조미」로 北行、天津에 進行할豫定으로 現地工作을 進行할模樣이라한다

寸鐵

○統制世上에서 아모리 統制해도 統制를 버서나는구멍은 수두룩한모양

○內地에서는 百貨店法實施로午後六時以後의 夜間營業은 禁止되어 對策을 講究中이라고

○其中에서도 全國에 五十數「스토아」를가진 高島屋에서는 丸高均一店을 獨立시켜서 百貨店拘束에서 버서나고 夜間營業을 自由로하리라고

○高島屋은 조켓지만 十錢「스토아」夜間營業禁止를 바라던 小賣商들은 도루아미타불

經濟界消息

○米穀研究會總會=米穀研究會에서는 二十一日午後五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總會를開催하고 新舊穀檢所長의 歡送迎을 兼하야 米穀當面의 諸問題에對한 意見交換을 行할터인데 當日 幹事의 改選도 行하리라고

今日의財界 (十九日)

◆米 (單位錢)

	今日前場	比前日前場
仁川期米先限	三三八九	一三高
大阪期米先限	三三〇五	一三高

	今日	比前日
京城三等米一石	三三三〇	不變
京城白米百키로一等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九錢高

◆株 (單位十錢)

	今日前止	比前日前止
朝新	四四〇	二高
東新	一六八五	九高
鐘新	一五六	一七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前止	比前日前止
大阪三品綿絲	三三四〇	三〇低
砂糖	一二八一	五低

今日의市勢 (十九日)

株式

押目買로 少高

前場小高 今前場은 休日을 압두고 買氣少起하야 東新百六十九圓六十錢 鐘新二百八十二圓九十錢에 强調이고 結局東新九圓三十錢 鐘新 二圓八十錢大新九十五圓丁 朝新四十圓四十에大引되고 朝取도九十九圓丁이 엇섯다 ▲後場은例休

東新의 强氣觀

國家總動員法提案에 依한 統制强化、聯盟通告에關한 對外關係等이傳하야 市場人氣는 相當히弱하고 百七十圓의 東新은歡派好個의 賣目標가되여잇는데 低價로 相當期間鍛鍊되여 仕手關係도顯著히 改善되여잇스니만치 [illegible]

現株買의 根據

最近의株式界를보면 淸算市場은 全이一進一退로 볼만한變化가업고 相當히올은듯한 株라도 調査해보면 그것도 그리올은것은아니다고생각되는株가 大端히 떠러지지안코 떠러져잇다 이러한模樣이나 어에反하야 實物市場은 平상한活氣를 보하고잇다 次次物色되는 株의 價는 때때로뛰고잇다 公開實出하는株도 連日相當한數에 올으고잇스나 其消化力도 意外로强하다 이現象을 大體어떠케 볼것인가 長短期取引어 이미 疲勞한 비층보혀 其末期的現象으로서 實株買가 旺盛한 것인가 或은 此實株買에 참根據가잇서서 結局 淸算取引도 旺盛케할 것인가 一般의 氣迷를 더하고 잇는 問題이나 此現株旺盛으로 볼수는업다 勿論그것도 時局的으로 關係를가진問題로 어느狀態이나 아직 今後一個月이나 緩慢하면 無鑑戒에드러간다 드되여 此邊에서는 末期的現象을 못한다고 생각하고잇스나 只今은아직 相當히 愼重하다 淸算市場이 조치못하기때문에 實株에 向하는者도잇다고 할수잇스나 此現株買의根據는 亦是『인풀레』豫想에 依하는 投資買를 主로 하는것이다 一方 淸算이 不伸하는것은 何如는 持株側에서 賣繫하는까닭이다 近日의消息은 現株가 범써 五千萬圓에 達하야 代引赤相當한 巨額에達하고잇다 取組高로 보드래도其數字보다도 比率에 엇서서 顯著히 重厭하여잇다

그러나 이러한現象을 一步더 經營하면 要컨대『投資株時代』에 直面하고잇는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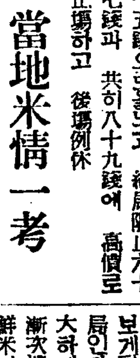
이미市場의 性格가되어엇는것보다는 새로운株式에 妙味있는 株가만흐므로 그만치淸算市場의 人氣도 强하다 赤是現株를 어떠程度사버리면 一次는 淸算市場의 人氣도 高調될는때가 오고 있것이나가 그러치안코 대로推移하면 株式界全般의 反動이 온다고생각되지안는까닭이다

國債

形勢觀望

不變

【東京電話同盟】 金融界는 [illegible]



㊑……週末은 東新百六十九圓合 鐘紡二百八十二圓合로强調나 依然保合圈離脫難 來週나期待할가▲科學的投資全盛時代에反하야 主力株는 지긋지긋한保合▲今月은無市勢禍에一致된듯 戰局과議會形勢를보는 수밧게別道理▲但閑散해도容易히崩壞치안코 底强味를不失하는때문▲설령惡材料가 나온다드래도 그때뿐이겟고 大下値는難期? ▲이러한保合끄테는 刺戟만잇스면언제彈上될지도 모른니 虎視眈眈理機會를엿살일

㊞……今朝의場面은 又一層强硬하야 三期共히動輒反撥의 形勢를보이고잇다 ▲活卑의感이업시 不知不識間에稍漸稍漸의趨移로 昂騰하는그步調가어느程度까지 繼續할지 더욱難測이야 ▲아직도保勢範圍를버서나지못하엿스니 반드시繼騰할것이라고謂키도難한걸 ▲三月一日殘存米의 減少量 범써부터云謂하야 買氣擡頭하는모양이나 過般實收高의 百五十萬石 乃至二百萬石의減少說이反히增收된 그前例로보아서一般의推測이란 到底히信用할수업는일

期米

消極買氣

漸進

前場續强 今朝阪地先限三十四圓五十九錢인 五丁反高를據하고當은 一圓三十五錢인 一丁低 中은一圓五十三錢인三丁低로先限은 이러타할만한賣買가가업서 三十一圓七十七錢인 昨止同價으로 場을始한後 阪地六十四五錢까지昂騰하얏는탓에 八節八十五錢으로올느고 結局阪止六十七錢과 共히八十九錢에 高値로止場하고 後場例休

甲實五分 一〇三、七五

二回四分 一〇三、二〇

十九年物 一〇三、五五

二十三年物 九八、六〇

佛貨四分 一九七、一五

米五分半 三六〇、三〇

好調이나 新規材料는업고 閑散裏에終始하야 極히 賣買가적어 釘付同樣이엇스며 一般은 形勢의狀況을觀望하고잇슴에 不過하엿다

當地米情一考

昨今各地市場에서는 昨今端境期의 新米早喰量이 增大하야來月一日殘存米의 發表가 相當한 減少量 示할것이라하야 자못堅實한步調를 維持하고 잇스나 當地

殘米發表期待

一時 朝鮮米의 實勢壓迫을機로하야 各地一齊低落을 告하든市勢는 三月一日殘存米의 減少說에 俄然 買氣旺盛하야 阪地는 今朝에至하기까지에 四十餘丁當地는 三十餘丁의反高를 示하엿다 殘存米의減少가 어떠한程度일지 此는 아즉 確斷할수업는일이나 某消息通에 依하면 昨年端境期에는 在米의不足을告하야 新米의早食이 相當한數量에達하야 來月十日頃에 發表할 內地殘存米의 發表는 例年에比하야 相當量의減少로 再昨年보다 增收한 그程度만큼 減數를 보게될모양이오 또는 時局이時局인만치 米의消費가 얼마큼增大하게될것을 豫期하고 買氣가 漸次擡頭하는光景이다 그러나朝鮮米의 事情은 超大豐作으로서 內地移出이 豐作의 比例로 보아서의 比較的不振하야 春暖期의 實勢威壓을 免치못할形勢에 잇슬뿐아니라 범써부터 三月一日 殘存米減收(云云)을 機로한昂騰은 實際의 殘存을發表할臨時 의 反落을 招來할前提가 아닐가하는 商談도업지아니하다

米價의 高騰을 보려할수업는 米價의 思想은 米價의 昨春의 當局의 高價하다 正租의市價는 期正에比하야 每斤九錢程度로서 朝取도 更히暴騰를示함으로 淸算도 更히實需의 期待가업슴과 實需의 減出이 不振하는一方으로 各港의 在米가 大百萬俵라는 稀有의 數量을示하고 又는產地倉庫中의 實方은旣히 實米四萬石을 手持하고잇스므로 最後一戰에 入하야는 반드시 實勢厭迫의 一落을 免치못할것가티 보인다 勿論 大勢의 보는 時局의關係로 더구나 諸物價의 一齊騰貴를 否定할수업는일이나 春間의 一落은 正米의 實勢情勢에 비추어 肯定하지안흘수도업다 今後商勢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

地方서는 强調

京城保合

正租의去益頑堅으로써 持側은繼續하야 强硬을示하나 休日을압두고 多少內注도잇지만 不振이오 高價에買方이躊躇하야 市勢드 前價同樣으로保合이엇다三等 一等三一、〇〇 四等三一、二〇 一等三一、九〇

仁川强保

滿腹의極에達하고잇음 大口持米側은 採算點으로 [illegible]

大邱堅調

依然凡調로活氣가업서 少數賣가 多少散見될不氣乘商狀이나 所持側의 淸算高에依하는 極度의頑强을示하기때문에 市勢小堅되며 五錢高로 上向하야 四等三〇、七五 一等白米一二、九五 団穀良三等三〇、九五

群山强調

細米七輛으로 賈物이거어서 大阪으로부터 積銀四等三十二圓八十五錢 乃至九十錢假量의 入注가 多少잇스나 賣物이 不添하야 商談이 具體化하지안코 三月一日現在의在米發表를 보기까지에는 變方共히 積極的態度를 엿볼수업스나 休日을압두고 今朝는 定期의 上走를보아 買氣濃在하야 市勢는 繼續하야 强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〇五

木浦上放

休日을압두고 內注가 多少잇스나 不合으로 商談이具體化하지안코 場面은 依然閑況을示하나 期米의 一齊硬化는 [illegible]

釜山上放

休日을 압두고 內地로부터의 買注가 다소잇서서 人氣的으로 活況을告하야 堅調로 [illegible] 一等白米一一、九〇 四等三一、三〇 一等三一、〇〇 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八〇

當地商人으로서도 頑强하다

買付가不可避하다는 頑强場面이엿다 團穀良三等 三一、七〇 一等白米一二、九〇 四等三一、五〇

水鉛 螢石 重石 分析 鉱石 入買 祿商會 京城鍾路一丁目三二

益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株式

◆朝取短期◆ ◆算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取組高◆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 (大日)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東京金利◆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金買入價◆ ◆對外爲替◆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雜穀◆ ◆京城綿絲布市勢◆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illegible]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綿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illegible]

京城物價 (十九日)

◆白米 ◆雜穀 ◆肥料 ◆紙物 ◆京畿道林業會公定都賣價 ◆砂糖 ◆洋灰 ◆海產物 ◆染料 ◆木材 ◆本綿 ◆人絹 ◆毛絲 ◆牛皮

[illegible]	[illegible]